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카푸치노 같은 거품이 나는 가루차!

누가 분쇄기를 쓰지 않고 맷돌로 갈까요?



한국제다는 전남 영암, 장성, 해남에 10여만평의 다원을 가지고 우리 차를 직접 만듭니다.
57년 차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차를 알고 차를 만듭니다.

우리 차의 정신- 한국제다 가루차

한국제다

제품 상담: 062)222-2902

차문화 2022 봄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 소식지 차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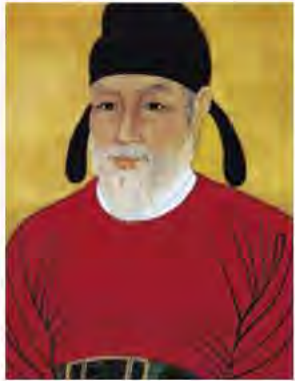
2022 Vol. 145 봄호

茶文化



통권 145호 (사)한국차문화협회

우전차를 따는 시기를 소개한 이수광의 차시들



이수광(李睟光 1563~1628)

이수광은 사회적 변동기에 새로운 사상적 전개 방향을 탐색하고 개척한 학자이자, 사회변화와 더불어 발생하게 된 실학과와 선구적 인물로, 조선시대 사상사·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수광이 차시(茶詩)를 다량으로 창작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가 남긴 차시 중에서 우전차는 우리 차에 대한 소중한 정보가 함께 들어 있다. 이수광의 우전차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옛사람이 말하는 우전차는 대개 3월 중 곡우 전에 잎을 따서 만든 차이다. 처음 나온 어린잎을 따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어떤 이는 정월 중 우수 전이라고도 한다. 이제현의 시에, “향기 맑으니 한식 전에 딴 ‘화전춘’인가”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화전’이란 한식날 불을 금하기 전에 따서 만든다는 뜻이다. 신라 흥덕왕 때 사신이 당나라에서 돌아오면서 차의 종지를 얻어 왔는데, 지리산에 심도록 명하였다. 지금 남쪽 지방 여러 고을에서 나는 차가 곧 이때 심은 것이라고 한다.

이수광의 『지봉유설』권 19, 식물부에 실린 글이다. 이 글을 보면, 우전차를 따는 시기에 몇 가지 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곡우는 4월 20일경, 우수는 2월 19일경, 한식은 4월 5일경이 된다. 또한 차의 전래에 대한 정보도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또 다른 시 ‘飲茶’에서는 찻물 끓이는 소리를 현악이나 관악보다 아름다운 술바람 소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불 조절하니 / 현악도 관악도 아닌 술바람 소리
노동의 일곱 잔을 마시고 나니 / 훌쩍 몸이 하늘로 오르는 듯하네.

차 한 잔을 마셔도 멋과 풍류를 느꼈던 차인들의 삶이 그리워진다.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 덜 풍족했을 텐데도 마음만큼은 풍족했을 차인들의 모습이 눈에 잡히는 듯하다. 2022년에는 모두가 풍족한 마음으로 지내길 소망해 본다. ☺

[표지 이야기]

차 한 잔을 마시며 넓은 차밭을 바라본다. 새순이 나오고, 꽃들이 앞다퉈 피어난다. 모진 고난을 뚫고 햇차를 마시게 하는 차나무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든다. 임인년 새해에는 차인 모두가 한 박자 쉬어가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소식지

2022년 봄호 (통권 145호) | 발행·편집인 최소연
발행처 (사)한국차문화협회 | 편집부장 고만승
040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T. 02) 719-7816, 7817 F. 02) 719-7815

홈페이지 www.koreatea.or.kr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茶文化

2022 Vol. 145 봄



茶半香初 • 내 안의 향기를 찾아

- 004 이사장 인사말 | 2022년 임인년은 ‘실천(實踐)’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006 특집 1 선덕차인 명예이사장님 7주기
- 012 특집 2 제58회 동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졸업식
- 016 특집 3 신년 하례식 |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행복해집니다
- 020 특집 4 정기이사회 | 2021년 사업 보고 및 2022년 사업계획(안) 토론
- 022 특집 5 규방다례 정기전송 시연 |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정기전송 시연

茶香共感 • 차의 맛, 차의 멋

- 030 차문화의 성지를 찾아서 | 부안 개암사 원효봉
- 038 선조의 품격 | 봄, 수고로움을 이겨낸 기쁨의 차
- 042 고전에 길을 묻다 | 이지함 토정비결
- 046 건강한 삶 | 폐렴
- 048 회원 글발 | 차(茶), 차(茶), 차(茶)
- 062 협회 소식 | 이귀례 명예이사장 성묘 외
- 066 찾자리가 있는 풍경

茶情茶感 • 찾았이 맺어준 인연

- 067 지부사랑방
경남지부 / 광주지부 / 교토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 순천지부 / 아산지부 / 전남지부 / 전북지부 / 충북지부
- 096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
- 104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액 내역
- 105 우송료 명단

2022년 임인년은 ‘실천(實踐)’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올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의 삶을 위협했던 수많은 질병과 같이 이 또한 금세 극복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머무를 줄은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잃은 많은 이들과 엄동설한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직자, 절박함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외침이 우리의 가슴 아프게 합니다. 길게 지속되는 재난 속에, 이제는 누군가가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행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만으로는 이 모든 것의 해소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회원들 모두가 기약 없는 기다림 대신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생각하고 여러 방면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결책임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협회는 2021년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을 펼쳐 차문화의 전통 계승과 발전에 앞장섰고, 어려움 속에서도 무사히 대학원 20기 개강 및 전문사범 개강과 보수교육, 임원 교육 등을 차질없이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차문화협회 30년사』 발간은 우리 협회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주는 업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찬란한 우리의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킨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차인 여러분 모두의 공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실천한다고 합니

다. ‘코로나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지,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처럼 되겠지,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좋아지겠지.’라는 안일한 기다림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뜻으로 지금 상황에 맞추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차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그 위에 두려워하지 않고 출선수범하는 용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천하는 행동력을 더 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삶은 아무런 올림이 없습니다. 오늘 행동하지 않은 자가 내일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여명이 밝아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처한 이 어둠은 단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여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엄동설한에도 곳곳하게 봄을 준비한 자연의 숭고함을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고, 그 어디에도 새순이 자랄 것 같지 않던 동토(凍土)의 땅에서 새싹이 움트기까지 땅속에서 줄곧 노력한 씨앗처럼,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결국은 싹을 틔울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지는 어둠에 무릎 꿇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성실하고 창조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면, 2022년에도 모든 어려움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지키게 될 것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노력의 끝에 밝게 웃음 지으며 대면할 날이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복을 붙잡는 한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봄

이사장 **최소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선덕차인 이귀례 명예이사장 7주기 추모식 및 ‘협회 30년사’ 헌정식

가족과 협회 임원 및 각 지부장, 이수자, 회원 등 참석

지난 2022년 2월 26일(토) 오전 11시 분당 메모리얼파크에서 선덕차인 이귀례 명예이사장님 서거 7주년 추모식과 협회 30년사 발간 헌정식을 함께 진행했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 가족과 협회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지부장, 이사,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선덕차인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협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귀례 명예이사장의 뜻을 받들어 한국차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런 협회가 창립한지 어느덧 30년이 되었다.

협회는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년간 노력하여 ‘한국차문화협회 30년사’를 발간하여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 헌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 및 각 지부장, 회원들이 일치단결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기념하고자 선덕차인 이귀례 명예이사장님 7주기 추모식과 협회 30년사 헌정식을 하게 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인천지부 회원들이 추모식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광옥 전승교육사(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7주기 추모식과 '30년사' 헌정식은 따뜻한 날씨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 묵념을 시작으로 최소연 이사장의 '협회 30년사' 발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우리나라 차문화 발전과 계승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협회가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협회가 창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녹록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중심에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차문화가 척박하기 그지없었던 1960년대부터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은 차인들을 모아 우리나라 차문화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또한 한국차문화협회를 만들어 체계적인 교육과 차문화 발전에 앞장선 선구자였습니다. 그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차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꽃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협회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을 오늘 헌정할 수 있게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단결하였고, 배려했습니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분의 숭고한 뜻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라고 협회 30년사를 소개했다. 이어 명예이사장님께 '협회 30년사' 헌정식을 거행했다. 최소연 이사장의 '30년사' 헌정식에 뒤이어 가족분들 모두가 명예이사장님께 '협회 30년사'



헌정과 예를 올렸고, 협회 부회장 등이 명예이사장님께 ‘협회 30년사’와 헌다례로 추모했다. 제7주기 추모식과 협회 30년사 헌정식에 많은 회원님의 도움이 있었다. 최소연 이사장님께서 상차림을 준비해오시고, 찰밥을 준비해오셔서 명예이사장님 품에서 회원들이 함께 식사와 차를 마실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다. 또한 참석한 회원들에게 표충도 버그 잔을 모든 분에게 기념으로 주었다. 협회 민달래 간사는 헌다기, 다반, 차, 30년사책, 등을 준비했고, 꽃바구니는 박혜란 이수자, 신임 이수자 일동, 전 이승조, 전 정건영 처장이 준비했다. 또한 난 화분은 연규남 이수자, 서울제1지부장 이석예, 장영애 이수자가 준비했다. 이 밖에도 인절미는 김가영 부회장께서 해 주셨



고, 강정자 부회장과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이 녹차 선물을 준비해 참석한 회원들에게 모두 제공했다. 서울제1지부에서는 이석예 지부장이 콩나물국, 이기분 이사가 구운김, 서울제2지부에서는 문차남 지부장이 개성주악, 류소영 전문사범 케익, 정순영 전문사범 개성약과, 허유진 전문사범 구절판, 인천지부에서는 이금숙, 조영아, 최지원 이사가 종합 김밥, 이막동 지부장, 강희옥 감사, 최성미 전수 장학생이 과일, 이해자 수석부회장, 인천지부 이막동 지부장, 아산지부 김태임 지부장이 행사 준비비를 찬조해 주었다. 무엇보다 먼길 한걸음에 달려와 참석해 주신 광주지부 박혜란 지부장과 신임 노영숙 이사가 함께 해 주어 고마웠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명예이사장님의 7주기 추모식과 ‘협회 30년사’ 헌정식은 따사로운 날씨 속에 명예이사장님을 추모하는 이야기꽃을 피웠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국내외 규방다례 이수자, 전수생, 회원 등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추모식을 기약하며, 제7주기 추모식과 협회 30년사 헌정식을 모두 마쳤다. ☯



제58회 동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졸업식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인원 참석,
화상으로 졸업식 중계

지난 2022년 2월 19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2급, 3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자격증 수여식 및 졸업식이 협회 3층 교육장에서 최소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차영민 부회장, 박광옥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졸업식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협회는 2월 19일 오전 11시 제58회 동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졸업식을 진행했다. 국민의례, 선고 차인에 대한 묵념, 이사장님 축사, 자격증 수여와 메달 수여식, 협회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 준 졸업생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정으로 축하합니다. 졸업에 앞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차인으로서의 꿈을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인생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둘째, 차문화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찬란한 문화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발전시키고 계승해야 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 셋째,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 39명 모두는 협회의 행사 및 지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협회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차모임 행사가 열릴 것입니다. 그 때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졸업식에 앞서 공로상과 봉사상 수여식이 있었다. 공로상에는 강원지부 지원 스님 외 15명, 봉사상에는 경남지부 정재윤 외 15명이 수여하게 됐다. 공로상과 봉사상에는 5인 다기 세트가 상품으로 수여됐다. 이어서 개근상과 화목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개근상은 순천지부 류주희 외 20명, 화목상 박남숙, 서지민 모녀 외 7명이 수상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2급 자격증 수여자는 강원지부(3명), 경남지부(2명), 광주지부(2명), 대구경북제1지부(3명), 서울제1지부(1명), 순천지부(10명), 인천지부(3명), 전남지부(12명), 전북지부(1명), 충북지부(2명) 등 총 39명이다. 이와 함께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3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2급 16명 등에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부득이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많았지만,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다.

협회 졸업식에 참석한 지부는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인천지부 등이었다. 지방의 각 지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졸업생들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며 기념촬영을 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제58회 동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졸업식은 하계연수회를 기약했다. ☯



강원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순천지부



인천지부



전남지부



전북지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행복해집니다

협회의 단합과 발전을 다짐하다

협회에서는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상으로 신년 하례식을 가져, 많은 아쉬움이 있었으나 국내외 지부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인 신년 하례식이었다.



국내외 지부장과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하례식

2022년 1월 11일 오전 11시 협회 3층 교육장에서 신년 하례식이 거행되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관계로 올해도 작년에 이어 최소 인원만 참석한 신년 하례식이었다.

협회에서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가영 부회장, 차영민 부회장, 박광옥 부회장, 이석예 서울 제1지부장, 김미숙 강원지부장, 강희옥 감사, 이명숙 이사, 이기분 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차인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항상 웃음 넘치는 차인이 되십시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오, 차인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화상으로 새해 인사말을 전했다.

전국의 각 지부장이 화상으로 참석한 이번 신년 하례식은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겼다. 2년 동안 화상으로 신년회를 하다 보니 애뜻함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신년을 맞이하여 서로의 안부와 협회의 단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각 지부장의 안부 및 인사를 시작으로 신년회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시루떡 커팅식과 이해자 수석부회장과 차영민 부회장의 건배사가 있었다. 이해자 수석부회장은 건배



사에서 “협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또 이번에 발간한 우리 협회 30년사 제작에 많이 노력한 교육위원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건배를 제의했다.

차영민 부회장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각 지부장 및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협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며 건배 제의를 했다.

협회에서는 최소연 이사장님께 회원들이 큰절을 올렸고, 회원 간에는 맞절로 예를 표했다. 한 해를 시작한 임인년, 협회가 더욱 발전하고 단합하는 해가 되자고 모두 다짐했다. ☺



2021년 사업 보고 및 2022년 사업계획(안) 토론 다양한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하다

2022년 1월 협회 정기이사회가 1월 11일 협회 3층 대강당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민달래 간사가 정기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국기에 경례, 성원 보고, 이사장님 인사 말씀, 이사회 회의록, 안건 상정 및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민달래 간사는 성원 보고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기이사회를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최소연 이사장님 인사 말씀이 있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화상으로 보게 되어 너무 아쉽고, 서운합니다. 회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보고에 앞서 최소연 이사장님께서 협회 발전기금으로 2021년도 기부금 36,000,000원을 기부하였음을 보고했다. 이어서 민달래 간사의 제1안 2021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 제2안 2022년 사업계획(안), 제3안 자격 보수교육 결과 보고(1) 1박 2일 임원 교육 결과, 자격 보수교육 결과 보고(2) 이수 현황, 자격 보수교육 결과 보고(3) 지원금 현황, 자격 보수교육 결과 보고(4) 수지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민달래 간사의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회원들은 의문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제4안 1월 자격검정 보고(1)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월 자격검정 보고(2) 인성교육,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으며, 제5안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지도사범 교육-강사비 변경,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지도사범 교육-교육과정(2),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지도사



범 교육- 65기 교육과목(3)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서 제6안 2021 행정안전부 공익사업 결과 보고- 차와 인성, 제7안 차와 인성교육 결과 보고, 제8안 제58회 동계연수회 일정 취소 및 2022년 2월 19일 실시한 온라인 졸업식, 기타 안건으로 협회 30년사 출판 건, 지부 주소 변경 건, 신임 이사 추천 건, 이사회비 납부 건, 지부별로 사범 연회비, 차문화지 우송료 납부 독려 요망 건 등을 처리했다. 2022년 정기이사회는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안건을 처리하는 등 알찬 이사회가 되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이른 시일 안에 함께 얼굴을 맞대고, 회의했으면 좋겠다.”라며, “오랜 시간 회의에 참석하신 각 지부장님 이하 및 이사님께 감사하다”라며 노고를 치하하며 정기이사회를 마쳤다. ☺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

코로나19로 인해 관객 없이 진행
최소연 이사장, 규방다례 계승 및 보존 당부

2021년 한해의 마무리 행사인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이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풍류관에서 최소연 규방다례 전수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차, 선비차, 가루차, 규방다례 순으로 시연이 있었다.



이혜자 수석부회장의 규방다례 연혁보고



생활차 나레이션_강정자 이수자



규방다례보존회는 2021년 12월 4일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풍류관에서 생활차를 비롯하여 선비차, 가루차, 규방다례 시연이 있었다. 지난 1년간 규방다례의 전수 활동을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정기전승 시연은 최소연 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의 지도하에 실시했다.

정기전승 시연을 하루 앞둔 12월 3일부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 보고됨으로써 갑자기 관객이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소연 규방다례보존회 보유자는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자들이 생활차, 선비차, 가루차, 규방다례 시연자들에게 몸가짐과 손동작 하나 하나 최선을 다해 지도했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 첫 순서로 규방다례 이수자인 이혜자 수석부회장의 규방다례 연혁 보고가 있었다. 규방다례 연혁 보고에 이어서 생활차 시연이 있었다. 생활차 나레이션에는 강정자 이수자, 시연에는 박



문차남, 유현주, 박경숙, 장영애 이수자

경숙 이수자, 장영애 이수자, 문차남 이수자, 유현주 이수자의 시연이 있었다. 생활차는 차와 물, 이 두 가지를 함께 넣어 우려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차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좋은 물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돌 틈에서 솟아나는 석간수를 으뜸으로 치는 데 일반적으로 생수를 사용한다.



선비차 나레이션_박광옥 전승교육사



선비차 나레이션은 박광옥 전승교육사, 시연에는 조상철 전문사범, 김구환 전문사범, 백운하 전문사범이 시연을 펼쳤다.

선비차는 박력 있고, 절도 있는 것이 특징으로 우리나라 선비의 기상을 느낄 수 있다. 조상철, 김구환, 백운하 전문사범은 전통을 재현하기 위해 많은 연습을 했다.



조상철, 김구환, 백운하 전문사범



가루차 나레이션_최영숙 이수자

가루차 나레이션은 최영숙 이수자, 시연에는 조영아 이수자, 이광용 이수자, 최지원 이수자, 최성미 전수장학생이 시연을 펼쳤다. 가루차는 말차라고도 부르며, 차를 우린 것이 아니라 찻잎의 가루를 직접 마시는 것으로, 차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4명의 가루차 이수자들은 정갈 하면서 품격 있는 시연을 펼쳤다.



최성미 전수장학생, 이광용, 조영아, 최지원 이수자

규방다례 나레이션은 김가영 이수자, 시연에는 박혜란(주인), 강희옥(돕는이), 강순란(큰손님), 유미현(둘째손님), 김미숙(셋째손님) 이수자가 시연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다례(茶禮)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돌아가신 조상께 제(祭)를 올리는 일에서부터 살아계신 어른들께 또는, 손님을 맞아 정중히 예를 차려 차(茶)를 대접하는 일을 다례라 했다.

규방다례(閨房茶禮)란 규방(閨房)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이다. 그리고 다례(茶禮)는 차례(茶禮)와 같은 말이며, '명절이나 조상의 생일, 또는 음력으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등 낮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다례는 차(茶) 다루는 법과 관계되는 제반 다사법(茶事法) 및 이에 수반되는 예의범절과 마음가짐



규방다례 나레이션_김가영 이수자



박혜란(주인), 강희옥(돕는이), 강순란(큰손님), 유미현(둘째손님), 김미숙(셋째손님) 이수자

까지를 포괄하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규방다례는 부녀자들이 방에서 차를 다루는 법과 제반 다반사(茶飯事)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부인들이 친척이나 이웃을 초청해서 차를 나누며 우애를 다지고, 몸가짐을 익힐 수 있는 음다 풍속을 계승한 것으로 규방문화의 중심이었다.

또한, 자녀와 며느리에게 규방에서의 다례를 도우면서 기품과 지성을 갖출 수 있는 예절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육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였다.

오랜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이어져 왔던 차문화와 생활 행다법을 정립해 복원한 규방다례는 2002년 12월 국내 최초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고(故) 이귀례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을 규방다례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 하였으며, 2013년 4월 2대 보유자로 현 최소연 이사장이 지정되었다.

규방다례를 비롯한 생활차, 선비차, 가루차의 행다 예법은 문헌적 고증에 바탕하고, 과학적 이치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으며, 한국차문화협회 설립 이후 행다법을 꾸준히 보급하고 있으며 많은 차인들이 이를 익히고 있다.

규방다례에는 우리의 전통, 예절, 과학, 생활, 청결을 존중하는 기본정신과 행다를 하는 사람이나 차를 대접받는 손님의 편안하고 원활한 동선(動線)까지 고려해 행다례가 주인이나 손님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이는 상보 접는 법, 다관을 잡는 법, 찻잔을 들어 손님에게 전달하는 법, 다식을 대접하거나 다식 저를 다루는 방법 등 모든 부분에 일관성 있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방다례는 모두를 아우르는 행다 예절로 손님을



맞이하여 인사를 나누고 차를 대접하는 모습인데, 오시는 손님 반갑게 맞이해서 정성껏 대접하고, 가시는 손님 뒤가 안 보일 때까지 배웅하는 한국인의 고운 심성이 담겨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보존되어야 할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다.

2021년 12월에 진행된 정기전승 시연에서 최소연 규방다례보존회 보유자이자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은 시연에 대한 강평을 해 주었다. 강평에서 최소연 보유자는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자, 이수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규방다례 정기전승을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재인 규방다례를 널리 계승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기전승을 위해 노력한 전수자, 이수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로써 2021년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을 모두 마무리 했다. ㉞



원효방에서 느끼는 차향, 차 한 잔이 주는 위로를 다시금 생각하다

원효방은 깎아지른 절벽 중앙에 있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슬아슬하게 원효방 근처까지 갔지만 실제로 들어가보지는 못했다. 차를 마시며 홀로 구도의 길을 갔던 원효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졌다.



차문화의 성지 '원효방'

차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부안 우금성에 있는 원효방을 한 번쯤 가 보고 싶을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차문화의 성지이기 때문이다. 원효(元曉, 617~689) 스님은 우리나라 차문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차가 들어온 것은 신라 선덕왕(632~647 재위) 때이지만, 널리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흥덕왕 3년(828) 대령이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차 씨를 가지고 와 왕명으로 지리산에 심은 후로 추측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원효는 차가 대중화되기 전에 차를 마신 차인이자, 고승이었다. 이를 역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1168~1241)가 지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 23과 『동문선(東文選)』 권 66에 수록된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이다. 남행월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남아 있다.

‘일행 예닐곱과 원효방(元曉房)에 이르렀다. 높이가 수십 층이나 되는 나무 사다리가 있어서 발을 후들후들 떨며 찬찬히 올라갔는데, 트락의 계단과 문이 수풀 끝에 솟아나 있었다. 곁에 한 암자가 있는데, 향간에 전하기를 사포성인(蛇包聖人)이 머물던 곳이라고 한다. 원효가 와서 살자 사포가 따라와 모시었는데, 차를 달여 원효에게 드리려 하였으나 샘물이 없어 고민하던 중에 물이 바위틈에서 갑자기 솟아 나왔다. 맛이 매우 달아 젓과 같으므로 늘 이 물로 차를 달였다고 한다. 원효방은 겨우 여덟 자쯤으로, 한 노승이 거처하고 있었다. 그는 삼살개 눈썹과 다 헤어진 누비옷에 모습이 고고(高古)하였다. 방의 중앙을 막아 내실(內室)과 외실(外室)을 만들었는데, 내실에는 불상과 원효



의 초상이 있고, 외실에는 병(甁) 하나와 신 한 켤레, 찻잔[茶盞]과 경궤(經機)만이 있을 뿐, 취구(炊具)도 없고 시자(侍者)도 없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당시에 찻잔을 사용했을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우금성 원효방은 역사적으로 차와 관련이 깊어 차인이라면 한 번쯤 가 보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

바위틈에서 흘러내리는 샘물 흔적만 남아

2022년 현재, 차문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원효방이 어떤지 궁금했다. 새벽 일찍 서울에서 부안행 고속버스를 탔다. 부안까지는 대략 3시간 남짓.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720번 버스로 갈



아타고 다시 개암사까지 약 40여 분 달리다 보면 개암사가 나온다. 개암사로 올라가는 길에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벚꽃길이 있다. 아직은 앙상한 가지만 보이지만 봄철에는 벚꽃을 보기 위해 상춘객들이 모여든다. 개암사 가는 중간에는 개암 저수지가 은빛 물결을 반짝이며 멀리서 온 손님을 반기는 듯 고즈넉하다.

개암사 경내를 구경하고 바로 우금성으로 발길을 옮겼다. 개암사에서 우금성까지는 약 20여 분 거리로 생각했던 것보다 짧다. 하지만 경사가 급해서 초보 등산객에게는 조금 어려운 코스이다. 우금성으로 오르는 좌우에는 사람들이 복을 빌기 위해 세워 놓은 돌탑과 약수터가 있어 천천히 오르

면서 물 한 잔 하는 여유를 가졌으며 한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도착한 원효방은 생각했던 것보다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원효방이라는 표지석 하나 세워져 있지 않은 원효방은 그야말로 폐허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원효방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차문화의 성지라고 하기엔 어딘지 미흡하고 허전한 느낌이었다.

수북하게 쌓인 먼지와 복을 빌기 위해 쌓아 놓은 작은 제단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토굴은 두 개가 있었다. 왼쪽은 작은 토굴로 토굴이라고 하기보다는 움푹 파인 느낌이고, 오른쪽 토굴은 그래도 토굴의 느낌이었다. 오른쪽 토굴은 그 옛날 사포성인(蛇包聖人)이 원효 스님께 차를 끓여 드렸다는 샘물이 바위틈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아직도 바위틈에서 샘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니 감개무량했다. 지금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소량인 데다 정비가 되지 않아 그 옛날 기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우금성 오른쪽 토굴이 진짜 '원효방'

원효방은 우금성 왼쪽에 있는 토굴로 알고 있지만, 이규보가 말한 원효방은 여기가 아니다. 이규보가 남행월일기에서 쓴 원효방은 우금성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있는 토굴을 말한다. 우금성에는 토굴이 세 개 있다. 하나는 왼쪽에 있는 토굴로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고(처음 본 토굴), 오른쪽에 있는 토굴 두 곳은 입산 금지로 접근 자체를 못 하도록 해 놓았다. 우금성 오른쪽(남쪽)에 있는 토굴이 차문화의 성지인 '원효방'이다.

'원효방'을 보지 않고는 떠날 수 없어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오른쪽 첫째 토굴은 원효 스님께서 벽면 수도했던 곳으로 사람이 앉을 자리만큼 좁고 작았다. 그곳에서 혼자 무슨 수도를 하셨는지 잠깐 헤아려보고, 진짜 '원효방'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 중간에 있어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사람들의 발길을 불허했다.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발길을 내디뎠지만, 차마 갈 수 없었다. 그곳에 가려면 최소한 전문적인 암벽 등반 장비를 갖추어야만 겨우 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고 험난해 보였다. 절벽의 높이는 약 20m로 밑을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위험했다. 간신히 사진 몇 장을 찍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원효는 깎아지른 절벽 토굴에서 무엇을 고민했을까. 수많은 백제인의 혼을 달래 주었을까. 아니면 속세의 요석공주와 설총을 걱정했을까. 그것도 아니면 일반 대중의 고단한 삶을 애달파 했을까. 필자로서는 원효의 깊은 생각을 감량할 수 없었지만, 그가 갈구했던 치열한 구도자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치열하게 정진하는 그에게도 녹차는 빼놓



부안 개암사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차밭



개암사에서 키우고 있는 차밭

을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이다. 녹차 한 잔에 모든 잡념을 버리고, 녹차 한 잔에 해탈의 경지의 맛보았을 그 옛날 원효의 모습이 아련히 그려졌다. 녹차 한 잔을 위로 삼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갔던 그 옛날 원효의 숭고했던 그 정신이 느껴졌다.

둘이 아닌 하나가 주는 ‘불이교(不二橋)’

개암사가 있는 부안 봉은마을은 전설 두 가지가 전해오고 있다. 봉은마을에는 유난히 대나무밭이 많다. 실제로 원효방 바로 앞에는 대나무밭이 펼쳐져 있다. 봉황이 대나무밭에 알을 낳고 품었다는 전설이다. 그래서 봉은마을이라고 정했다는 설과, 봉은마을을 ‘큰점’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릇을 만드는 가마와 이를 파는 점포들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것도 나름으로 신빙성이 있는 설이다. 개암사는 다른 절과는 다르게 차밭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다. 불이교 양옆으로 펼쳐진 차밭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정화시켜주는 것 같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찻그릇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규보의 남행월일기에는 원효가 사용했으리라고 믿어지는 찻잔에 대하여 재질이 ‘자(瓷)’임을 밝히고 있다. “자(瓷)”는 넓은 의미로 질그릇, 즉 토



개암사에서 바라본 우금산성



기·도기·자기 전체를 가리키나 일반적으로 자기만을 지칭한다. 더욱이 그 자신이 다자를 사용한 일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큰점’이라는 지명 또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개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불이교(不二橋)를 지나야 한다. 불이교 양옆으로는 스님들이 가꾸는 거대한 차밭이 푸르름을 자랑한다. 불이(不二)는 유마경에 나오는 말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개념이다. 참된 불법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말로 표현되는 순간 개념화된다.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야!’라는 말 안에 이미 생사가 있고 열반이 있다. 참으로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님을 설하려면 ‘생사’라는 말, ‘열반’이라는 말조차 붙여서는 안 된다.

개념 지어 말로써 설명하게 되면 이미 둘로 나뉘는 것이다. 문자도 언어도 없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불이(不二)에 드는 길이다. 어쩌면 원효방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원효방이 사라지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생각은 단순하면서도 정신을 번쩍 나게 만드는 화두임이 틀림없다. 불이교를 지나면서 원효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것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그에게 유일한 낙이라면 한 잔의 녹차였을 것이다.

2022년 새해, 구분하고 나뉘는 삶보다는 모든 것이 불이라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원효방에서 벽면 수도를 하지 않더라도 해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2022년 차인 모두 불이(不二)한 삶을 살아보길 기원해 본다. ☯

봄, 수고로움을 이겨낸 기쁨의 차

박숙희
한문교육학 박사,
협회 부회장,
충북지부장



아직도 코로나19는 우리 옆을 떠나지 않고 있다.
힘든 겨울을 두 번이나 지나면서 희망을 놓지 않았건만.
삼세번이라는데 올해 한 번 더 애써 보자.
힘내자!

봄 인사

이해인

새소리 들으면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봄 인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겨울
마음의 겨울
겨울을 견디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높이 올라가자
절망으로 내려가고 싶을 때
우울하게 가라앉고 싶을 때

모든 이를 골고루 비추어주는
봄 햇살에 언 마음을 녹이며
당신께 인사를 전합니다.
햇살이야말로
사랑의 인사입니다.

이해인 님의 시 <봄 인사>이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낸 기쁨은 새삼스럽게 삶의 활기와 감사를 안겨준다. 함께 둘러앉아 힘들었던 옛이야기 나누며 마주한 한 잔의 차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요 인생 최고의 보람이다.

이승인(1349~1392)은 고려 후기의 문학을 대변하는 문인이다. 14세의 나이로 국자감시에 합격하여 이색의 제자로 학문을 배웠다. 21세 때 성균관의 생원이 되면서 이색 문하에서 정몽주, 정도전, 권근 등과 깊이 있는 교우관계를 가졌다. 문사로서 국내외에 이름을 떨쳤고, 문재로서 국익을 위해 기여했으며, 시는 후대에 많은 극찬을 받았다. 또한 이색으로부터 성리학을 전수받아 유교의 학풍을 새롭게 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으나, 그 기개를 펴지 못하고 정몽주가 살해된 후 그의 일당으로 몰려 유배지에서 살해된 불우한 사람이다.

그의 『도은집』에 실린 <실주 주사에 차를 드리며, 두 수(茶呈實周主事 二首)>를 감상해 보자.

海上鄉茶占早春 바닷가 고향에서 나는 이른 봄 차
筠籠采采露芽新 이슬 젖으며 대바구니 가득 탄 차 싹이 나오
題封寄與儀曹問 밀봉하여 의조로 보내며 여쭙나니
內樣龍丹味孰眞 궁중 용단차와 어느 것이 참맛일까요

黃金霏屑玉精糜 황금 가루 머금은 옥빛 마음인 듯
不雜蘭膏也自奇 향기로운 난고차는 절로 기이하나
橄欖細和玄酒淡 감람향 어린 맑은 물인 듯 담담하니
煩公作譜使人知 번거로워도 공께서는 다보를 지어 널리 알려주소

이승인은 고향에서 이른 봄에 따서 만들어 온 소중한 차를 중국의 이름난 명사인 주사(主事) 임밀(林密)에게 선물하면서 시 두 편을 지어 함께 보냈다. 의조(儀曹)는 고려 후기의 중앙관청으로 예의(禮儀), 제향(祭享), 조회(朝會), 교빙(交聘), 학교, 과거(科擧)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곳이다.

첫째 수는 정성스럽게 법제(法制)하여 차를 보내는 마음과 차의 진면목을 볼 줄 아는 실주주사의 높은 안목을 칭찬했고, 둘째 수에서는 차의 진귀함을 강조하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을 당부했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근본은 진실한 마음과 정성이다. 차는 식물에 불과하지만 다른 식물과 차별화된 참된 향기(眞香), 참된 빛깔(眞色), 참된 맛(眞味)의 진성(眞性)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차를 덕성스러운 인간에게 빚낼 수 있는 소지이다. 이른 봄 겨울을 이기고 막 돌아난 차 싹들은 영롱한 자연의 기운을 모두 갖춘 신의 선물이다. 이것으로 정성스럽게 법제한 용단차(龍丹茶)는 최상의 예우이다.

참새 혀만큼이나 작고 막 피어난 찻잎은 잡것이 섞이지 않은 청정의 순수함을 갖고 있다. 때로 차의 순수함을 모르고 술이나 다른 것을 섞는 오류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차에는 색·향·미가 있어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은 다보(茶譜)의 처음이다. 이 좋은 차를 마시며 안목 높은 품평가로서 다보를 지어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당부해 본다.

이 시에 등장하는 용단차와 난고차(蘭膏茶)는 새로운 차 이름으로 용단차는 중국의 용단(龍團), 봉단(鳳團)의 일종인 것 같고, 난고차는 난초의 향기를 착향(着香) 시킨 난고차의 일종이다. 현주(玄酒)는 제사를 지낼 때, 술 대신 쓰는 맑은 찬물을 일컫는다.

좋은 차를 대하며 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널리 알려주길 당부하는 모습과 정성스럽게 차를 선물하는 모습에서 차와 사람을 사랑하는 작가의 마음과 교유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삼는 차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어느 결엔가 남녘의 봄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제 곧 햇차가 다들 드리라. 누구에게나 봄빛은 똑같이 따사롭게 비쳐든다. 이 봄, 그 햇살을 따사로이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차인이 되고 싶다. 향기로운 햇차를 마시며 겨우내 힘겹던 삶을 스르르 녹이고 싶은 봄날이다. ☀

운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이지함 토정비결

인간은 참으로 허약한 존재이다. 허약한 존재인 우리는 절대적인 그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다.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양에서는 타로점이 아직도 사랑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토정비결을 보는 것인지 모른다. 달나라에 우주선이 가고, 가상현실이 판치는 5G 시대에 토정비결을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허무맹랑할지 모르지만, 불확실한 삶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지. <편집자 주>



이지함(李之菡, 1517~1578)

정초 세시 풍속으로 점을 보기 시작

토정비결이란 말은 조선 시대 이지함(李之菡, 1517~1578)이란 학자의 호 토정에서 가져온 말이다. 토정비결은 개인의 사주(四柱) 중에서 태어난 연, 월, 일 세 가지를 활용하여 일 년 동안의 신수를 열두 달로 알아보기 위한 방식이다.

이지함은 1517년에 태어나 1578년까지 살았던 조선 중기의 학자이다. 그는 현재 마포구 용강동 강변에 흙담을 지어 청빈하게 지냈다고 한다. 조선 전기 『화담집』을 저술한 서경덕의 제자로 들어가 경사자전(經史子傳)에 통달하였고, 역학, 의학, 수학, 천문, 지리에도 해박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토정비결을 보는 관습(?)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신라 말 도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



이 있다. 정초에 토정비결을 보는 풍습은 동국세시기에는 오행점(五行占)으로 한 해의 신수를 본다고 적혀 있고, 조선 후기 민생의 곤궁히 심해지자 보다 개인적인 시대적 요청에 따라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초의 세시 풍속에 유난히 점복적인 요소가 강하여 새해를 맞아 한 해에 대한 기대 심리와 놀이적 요소가 복합된 풍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부터는 거리에서 토정비결을 봐주는 점복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결과 서울에서는 미아리 주변으로 집단적인 점집이 운영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즘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토정비결도 성행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수백 년간 서민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아온 운세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이지함의 토정비결이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것

토정비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열두 달의 운세를 4인 3구의 시구로 풀이하고 있다는 점이 재미있다.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은 ‘뜻밖에 귀인이 찾아와 길한 일이 있다. 구설수가 있으니 입을 조심해라, 봄바람에 얼음이 녹으니 봄을 만나 나무로다.’ 등과 같이 주로 부귀, 구설, 가정 등 개인의 길흉화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요 해설 내용은 좋은 운도 있고 나쁜 운도 있지만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토정비결의 해석은 대단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화가 대나무에 붙으니 남의 힘을 입어 성공한다.’란 운세가 나왔다면, 이는 좋은 뜻인듯하나 ‘자



수성가지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해 성공하니 어찌 좋겠는가'라며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함을 일컫는다.

또 '남과 더불어 일을 함께하면 어긋나는 일이 많다.'란 운세가 나왔다면, 나쁜 운인 듯하지만 스스로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뜻도 있다. 이렇듯 토정비결을 나름대로 맞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토정비결은 어느 시대건 현실을 반영하여 운명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척을 강조하고, 조심하면 액운을 피해갈 수 있고 덕을 쌓고 정성을 다하면 누구나 출세하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면이 강하다. 그래서 새해 사람들이 토정비결을 보는 것이다.

과학적 객관성보다는 윤리적 강령으로 사용

토정비결은 기본적으로 주역의 채로서 풀이한 것이지만, 주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주역의 책은 64채로, 총 424개의 채상인데, 토정비결의 책은 48채로 총 채상은 144채로 주역보다 많이 적다. 그리고 토정비결은 책을 만드는 방법도 연, 월, 일, 시 중에서 시가 제외되어 다양성이 부족하여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정은 원래 방대한 규모와 정확한 적중도의 저술로서 민간의 피흉추길(避凶趨吉)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나, 너무나 자세하고 정확한 예언서가 주는 폐



해를 경험하고 난 후 그 규모를 대폭 줄였다고 한다.

주역은 일부 유생들의 전유물처럼 되었다. 유학에 조예가 깊고 학문을 한다는 유생들이 토정비결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조차도 상스러운 일로 간주하였다. 토정비결은 서민을 위해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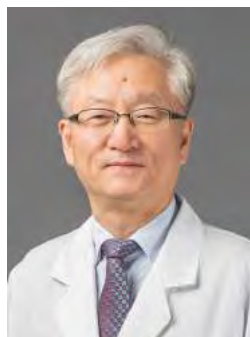
현대적 의미로 보면, 과학적 객관성이 의심되지만, 교훈적 희망적인 내용이 많아 윤리적 강령이나 도덕률로서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토정비결에서 요구하는 청렴결백, 욕심이 없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실천 덕목으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과학성의 문제는 숙제로 남기고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풍속의 하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옛것은 모두 버려야 할 구닥다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취하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면 좋겠다.

토정비결은 재미로 한해의 운수를 보는 것이지,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 말 그대로 재미로 한해의 운수를 보고,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

질병 사망 3위 폐렴, 면역저하자는 특히 주의해야!

고위험군일 경우
폐렴구균 백신 접종 권장



가천대 길병원 호흡기내과
정성환 교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도와 치료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폐렴의 진행 정도를 들 수 있다. 2020년도 국내 질병 사망 원인 중 폐렴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률 43.3명으로,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할 만큼 치명적 질환이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라는 점을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폐렴은 폐의 기관지 하단 폐포 조직에 생긴 염증을 말한다. 감기와 폐렴을 혼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침, 가래, 오한과 같은 초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인데, 감기가 대부분 대증적 치료만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반면, 폐렴은 바이러스뿐 아니라 박테리아, 곰팡이균 등 다양한 감염으로 발생하고 증상 또한 감기보다 심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폐렴의 원인으로는 폐렴구균,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미코플라스마,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녹농균 등 박테리아 감염과 인플루엔자(독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리노바이러스(감기) 등 바이러스성 감염, 토양, 곰팡이 등에 접촉하면 유발할 수 있는 진균성 감염에 의한 감염 등을 들 수 있다. 폐렴구균은 코, 목, 입에 살고 있다가 침을 통해 폐로 내려가서 폐렴을 일으키며,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침투하면 우리 몸이 백혈구와 같은 방어

세포를 생성하는데,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혈구가 세균과 싸워 이기지만, 면역력이 저하되면 백혈구 활동력이 떨어져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자, 심혈관 질환자, 당뇨병 환자, 말기 암 환자, 항암치료 환자 등은 면역력이 낮아 약한 균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폐렴은 초기에는 감기, 독감 등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이후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 감기는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충분한 휴식을 통해 1~2주 내 저절로 회복되지만, 폐렴은 증상이 길고 심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누르고 냄새나는 가래와 발열이 심하고 숨찬 증상이 특징이다. 폐렴이 생기면 폐포에 염증 물질이 생기고 이 때문에 산소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가래가 많이 생기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기침이 발생하고 두통, 발열, 오한 등의 전신 증상도 동반한다. 심하면 폐 전체에 염증이 퍼지게 되면서 폐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 고령층뿐 아니라 만성질환자와 2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폐렴으로 인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폐렴으로 진단이 되면 적절한 항생제 처방으로 치료하고, 심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항생제는 미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균에 대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돕는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급성 폐렴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 폐렴 적정성 평가 기준을 보면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 검사,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 등을 중요한 치료 기준으로 삼고 있다.

폐렴의 치료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침이다. 폐렴이 생기면 기관지 섬모기능을 약화하는 분비물이 늘고 지속되면 이물질, 죽은 세포, 염증 세포 등이 섞여 누르고 끈끈하게 변하는데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침을 통해 외부로 배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폐가 호흡운동을 할 때 관계되는 호흡근이 약하면 기침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호흡근을 강화할 수 있는 재활치료도 동반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새롭게 밝혀진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지만, 폐렴 환자에게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즉 밝혀지지 않은 바이러스 및 세균으로 인한 감염도 존재하고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암,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는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노인층, 면역저하자의 경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주변 청결 등 개인위생에 힘써야 하고 호흡근 강화를 위한 걷기 운동 등 유산소 운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또한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폐렴구균의 경우, 만성질환자나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적극적으로 맞을 것을 권한다. 폐렴구균 백신이 폐렴을 완전히 방어해주지는 못하지만 심각한 합병증으로의 발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❷

차로 인한 내 인생의 2막

소중한 인연들과
울타리를 넓혀 가겠습니다



경남지부 전문사범
김달자



살포시 내려놓은 차 상보를 들면 햇살 머금은 차
꽃같이 새하얀 다우님들 얼굴들이 도란도란 속삭
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소소
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일상은 찻잔 속에 머무는
시간들로 햇살이 가득합니다.

가끔 차 도구를 보러 가거나 멀리 있는 차 벗을 만
나러 가는 날에는 꽃신을 신고 화장을 하며 옷매
무시를 가다듬을 때부터 마음은 이미 구름같이 하
늘을 둥둥 떠다닙니다. 제 인생에 있어 차생활은
한곳에 뿌리를 내리면 스스로 곧게 곧게 침착하는
차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만 먹으
면 주섬주섬 차 도구 몇 개 챙겨 나설 때의 설렘은

또 어떻습니까. 허물없이 마음을 마주할 차 벗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부자입니다. 멈춰지
고 느릿한 시간 속 강변에서 달을 보며 밤새워 이
야기를 나누면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황미경 지부장님의 권유로 한국차문화에 입문하
여 그동안 배운 지식과 좋은 분들은 너무도 튼튼
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옛 친구들은 저의 변한
모습이 좋다고, 지금의 모습이 부럽다고들 합니
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차를 배우기 전에는 상상도 못 해봤던
변화입니다.

2급 사범과 1급 전문사범을 수료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지부의 사범반 수업에 동참합니다. 아직은
손이 설은 사범반 차인들의 수업 준비를 돕고 저
도 재교육을 받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시간을 즐긴다는 의미를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
습니다. 지금의 다우님들과 또 새롭게 만날 분들
과도 좋은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
든 차를 마시며 마음을 정화하고 고요를 찾는 시
간으로 꾸며 갈 것입니다. 차와 더불어 더없이 소
중한 인연들과 울타리를 넓혀 가겠습니다.

지도사범 교육을 마치며...

생활차, 선비차, 규방다례를 통해
나를 찾다



서울제1지부 지도사범
서지민

(사)차문화협회 서울제1지부의 지도사범교육 과
정을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조금은 어렵
게 마쳤다. 필기시험 당일 지부에 도착해서 시험
일정을 들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와 인성교
육지도사 필기시험은 1교시, 2교시로 나뉘어서 시
험을 보았다. 필기시험을 본 당일부터 실기시험인
생활차, 선비차, 규방다례를 하였다. 생활차와 선
비차는 초등학교 때부터 청소년문화대전과 인설
차경연 대회를 꾸준히 참여하며 배워왔기 때문에
어렵지않게 다가 왔지만, 규방다례는 거의 눈으로
보기만하다 실제로 배워보니 많이 어렵고 힘이 들
었다. 규방다례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힘들 줄은 몰랐다. 우선 과정이 복
잡하였는데, 건네주는 순서, 건네주는 손동작, 들
고 가는 방향과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 물
뜨는 법, 물 다시 채우는 법 등등의 복잡한 과정과
한번 연습할 때마다 30-40분 정도 시간이 걸리네
데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니 몸이 지쳐왔다.
실기시험 전까지 시간이 약간 촉박해서 연습을 많
이 못하고 실기시험 당일이 되었다. 심의는 규방
다례 이수자이신 최정희 이사님을 모시고 이석예

지부장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평소 딸처럼 챙겨주
시던 두 분 앞에서 심의를 보는데, 생활차는 평소
해 왔기에 무난하게 했지만 규방다례는 처음 다른
사람 앞에서 하니 손 떨림과 시험이라는 긴장감이
있었다. 다행히 기억을 잘 더듬어서 규방다례를
잘 마무리하고 잘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한 평을
들었다.

차문화협회에서의 첫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나
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차문화대학원에
등록하여 더욱 열심히 연습하고 이론공부도 더 열
심히 공부해서 차에 대한 지식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난 차문화

우리 차문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겠다고 다짐



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김민아

최근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문화 중 대표적인 것은 ‘차문화’입니다. 그들에게 ‘차’는 문화를 넘어 일상이며, 삶 자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호텔에 도착해 늦은 저녁을 먹고 자 짐만 급히 풀고 레스토랑으로 올라갔습니다. 피곤함을 덜어내기 위해 음식을 시키기도 전에 ‘차 한 잔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친절한 직원은 ‘차의 종류가 많으니 원하는 차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메뉴판을 내오는 정갈함 혹은 차의 종류를 읊어주는 친절함보다 제가 원하는 차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저에게 충분히 ‘우즈베키스탄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로 들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시간 동안 본 것은 ‘차문화’는 그들의 주된 문화라는 것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누구나 한 개씩은 장바구니에 넣을 껌 혹은 초콜릿, 사탕 같은 것을 진열해 놓을 위치에 항상 수많은 종류의 ‘차’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가게도 한쪽 벽을 채울 정도의 종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산 ‘차’부터 유럽산,



중동산 ‘차’까지 다양한 차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형마트의 가판 판매대에서 마치 젤리를 그림 수로 덜어서 팔듯이 다양한 차를 그림 수로 팔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포대 자루에 차를 쌓아놓고 파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식당에 들어가 메뉴판을 보면 ‘스트레이트 티’뿐 아니라 과일과 블렌딩한 신선한 ‘블렌딩 티’들이 다양한 종류로 있었습니다. 그곳이 패스트푸드 식당이든지 고급 식당이든지 음식의 종류와 식당의 별점을 막론하고 메뉴판 한구석을 다채롭게 채우고 있는 것은 ‘차’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참 좋았던 점은 ‘블렌딩 티’ 같은 인력이 조금 더 들어가는 음료가 아니고서야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 ‘차’였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생활하다 보니 이곳은 홍차와 녹차 그 외에 다른 차를 많이 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역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본래 수도 타슈켄트 지역에서는 ‘커라 초이(홍차)’를 즐겨 마셨고, 다른 지역에서는 ‘콕 초이(녹차)’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수도 타슈켄트

와 주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북쪽에 있어 몸이 따뜻하게 하는 홍차를 즐겨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남부 지역에서는 몸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차분하게 돕는 녹차를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역과 상관없이 유통이 잘 되어 홍차와 녹차를 생활 속에서 즐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이차’와 ‘허브차’와 같이 다른 차들도 분명 어딘가에 팔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사실 현지 사람들이 즐기는 것은 거의 ‘홍차’ 혹은 ‘녹차’였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바쁜 일정과 현지의 코로나 상황으로 원활하게 이동이 어려웠기에 더 많은 곳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유명한 티 하우스를 갈 수 없게 되어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현지 통역사 ‘이브 게니’씨에게 대형마트에 데려달라 부탁을 했고, 동료들과 통역사님이 놀랄 만큼 캐리어에 온갖 종류의 티를 욕심껏 가능한 구매를 많이 해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2주간 자가격리 동안 저는 우즈베키스탄 대형마트에서 사 온 모든 차를 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형마트의 ‘차’는 한국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차’ 품질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차’ 상품 아이디어 또한 기발했습니다.

바나나와 홍차, 라임과 홍차, 레몬과 홍차, 라즈베리와 홍차, 초콜릿과 홍차, 모히토 녹차, 생강 녹차, 밀크 우롱 등등. 기존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 티에서 출시된 버전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맛과 향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즈베키스탄의 차문화를 많이 알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대한 고찰

한복챌린지



서울제2지부 교육생
권미루

2022년 2월. 우리는 모두 중국의 치파오가 당연히
게 그들의 행사를 장식해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90년대 유행했던 한복을 입고 배
써대기, 제비부리댕기를 드린 여성의 등장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중국 내 56개 민족 대표로 출연했다. 상모돌리기
에 이어 장구, 강강술래, 윷놀이, 한복 입고 떡메치
기, 한과 만들기에 김장 모습 영상은 지금 내가 보
고 있는 행사의 개막식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자색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베
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한 황희 문체부장관의
모습이 언론에 비쳤지만 모두의 충격을 가라앉히
지 못했다.

엮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패션 전문지 보그
(Vogue)가 한복 풍 의상을 한푸(Hanfu)라 소개한
내용과 중국 여성 모델의 SNS 인스타그램 발언이
net 상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녀는 '한복이 한
푸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발언으로 한국 네티즌
과 입씨름을 이어갔다.

최근 중국인들은 자신의 전통의상을 치파오가 아
닌 한푸(漢服·한복)라 주장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푸는 신조어다. 한족의 전통 복장을
한데 묶어 대략 '한푸'라고 말한다. 중국인이 치파
오를 입었던 시대는 이민족인 만주족 청나라가 통
치했기 때문에 억지로 강요당한 복식이라, 진짜
전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현재 그들
이 말하는 한푸는 한족 전체의 의복을 아우르지
못하고 '고려양'이라는 형태에 국한된 점에서 문제
가 발생한다.

중국은 현재 국가 내 56개 소수민족의 역사가 모
두 중국 역사의 일부인 '중화민족'이고 모두 중국
문화라고 가르치고 있다. 해당 논리에 따르면 조
선족의 역사와 문화는 중국 일부이며 중국의 소유
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출생
한 중국의 분노 청년, 최근 '소분홍' 세력은 이러한
극단적 애국주의 교육과 국가를 팬덤화 하는 문화
안에서 서양을 공격하며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한국문화의 확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2019년,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킹덤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모자 열풍을 불러일으
켰다.

이에 질세라 1년 후, 중국 드라마 '성화 14년'에서

는 당대 명나라 망건과는 형태가 다른, 조선 시대
스타일의 망건과 갓이 등장해 많은 이들을 당혹스
럽게 했다.

'한복이 명나라가 고려에 전해준 것이며 당시 고려
에는 체계를 갖춘 의복이 없었다'라는 중국 네티즌
의 주장 또한 터무니없다. 현재 중국인들이 자신
의 전통민족복식이라고 말하는 '명나라의 한푸'는
한복과 형태부터가 다르다. 한복은 바지와 저고리
를 함께 입는 (상유하고, 上襦下袴)형 복식인 데 반
해 한푸는 성별과 상관없이 옷위에 치마를 두르는
(상의하상, 上衣下裳) 방식이다.

문제의 발생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
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
크는 외국 백과사전에 한복을 새로이 신기도 하고
보그지에 대항하는 비판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
다. 이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옷, 겨레옷, 한국 고
유의 옷인 한복을 더 많이 입고 더욱 아끼며 소중
히 생각할 일이다. 더불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채
널을 통해 한복이 한국의 옷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널리 알려야 한다.

어린 날의 슬픈 방황

‘2021년 에세이스트 등단’ 작



전남지부 전문사범
선수원
(이사 역임, 중등국어교사 재직)

“내 딸 어디 있는가, 우리 집에 가자”

문자엄마다. 대문을 들어서면 팔팔한 목소리로 나부터 찾는다. 이때부터 나의 가슴은 요동을 치기 시작한다. 아저씨같이 큰 체격에 부리부리한 두꺼운 쌍꺼풀하며 큰 목소리로, 우리 집에만 오면 나를 데려가겠다는 문자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이상한 일이다. 나를 뻔 우리 가족은 내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사람의 호쾌한 입담을 재미있어하며 좋아한다. 집 안에 공포의 파장으로 울리는 나를 찾는 소리에 가족들은 다들 나와 반긴다, 그사이 나는 쿵닥쿵닥 뛰는 가슴으로 숨을 곳을 찾아 켄걸음으로 헤맨다.

대청마루 밑으로 정신없이 기어 들어가다 몇 번씩 머리를 찢는다. 무릎이 파편에 찢리기도 하지만 이런 아픔을 느낄 세도 없다. 나를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한순간에 숨어든 어둡고 깊숙한 마루 밑은 은신처가 되어 주었다. 나를 찾는 소리들이 메아리처럼 들려오지만 이내 조용해진다. 마루 틈새로 새어져 나오는 이야기 소리, 웃음소리에 얼굴을 조아리며 서러움을 삼킨다. 바로 위아래 언니와 동생처럼 무용도 시켜주

지 않고, 그들처럼 예쁘지도 않고, 양 갈래로 땀은 머리가 아닌 상고머리인 내가 서러웠다. 정말 나는 문자엄마 딸일까... 웅크리고 있는 불편한 몸은 더 작아진다. 마루 밑으로 간신히 비껴 들어오는 빛 조각들은 나를 달래주는 유일한 나의 편이었다. 알 수 없는 나의 출생에 그저 무섭고 서럽기만 하다. 이때가 아마 예닐곱 살이었던 것 같다. 나는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늘 쭈뼛쭈뼛하였다. 가만히 대문 앞에 서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두 귀를 종긋 세웠다. 어떤 낄새라도 느껴지면, 순간에 커지는 두려움에 정신없이 무작정 뛰어나간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어두워지길 기다려야 했다. 지금쯤이면 ‘혹시’하던 문자엄마가 가셨기를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도망치듯 집을 벗어난 곳에 나의 의지처가 생겼다. 정처 없이 다니다 만난 신기하고 재미난 세상은 나를 편하게 받아 주었다. 동네에 들어와 있는 서커스단은 집채보다도 큰 천막 안으로 어린 아이라고 그냥 들어가라 한다. 광주천 다리 아래 천막속 창극단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있는 가마니 깔린 바닥에 끼어 앉기만 하면 되었다. 천막 안

가설극장은 나에게 별천지였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갯가지 서커스 묘기를 보며 나의 처지를 금방 잊었다.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여긴 나는, 창극단의 구슬픈 소리와 눈물 나는 이야기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였다. 늦게야 집으로 돌아오는 나에게 엄마의 잔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나를 우리 집 복덩이라고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내가 태어나고서 아버지 하는 일이 불같이 일어나 모든 것이 좋아졌다 하셨다.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분명 친딸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자엄마의 내 딸 타령도 계속되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점차 몸도, 마음도 자라나면서 나의 슬픔과 공포도 무디어갔다. 그즈음 진즉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어린 날 슬픈 방황은 종지부를 찍었다. 우연히 엄마와 문자엄마가 웃으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듣게 되었다.

엄마는 다섯째인 내가 임신되자 중절수술을 생각하셨다 한다.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문턱을 넘는 순간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냥 돌아오셨단다. 그 뒤로 마음이 바뀌어 또 다시 산부인과에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문자엄마가 운명의 가름 역할을 해주신 것이다. “내가 키워 줄 테니 그냥 낳으라”며 엄마를 붙잡고 간곡히 설득하셨다한다, 그렇게 해서 나는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는 내내 출생에 대하여 엄청난 겁에 질려 있어야 했고, 문자엄마는 어쩌면 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내가 내심 흐뭇하여 “내 딸 내

딸” 하셨던 것 같다.

감나무의 어린 잎이 빠죽 세상에 얼굴을 내미는 눈부신 봄날 같은 유년시절에 어른들의 애정 어린 놀림에 가슴이 쿵닥쿵닥했을 어린 영혼이 안쓰럽기만 하다. 세월은 신기하게도 어린아이의 무서움과 슬픔을 지워내고 그리움이 자리하게 해주었다. 어찌되었든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한 분이 아닌가. 살아계신다면 잘 헤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내가 철들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어린 아이를 무서움에 떨게 하였지만, 한 생명을 세상에 나게 한 뿌듯한 마음을 나름대로 보이셨던 문자어머니가 이제는 그림다. 몇 해 전 돌아가신 엄마는 나의 출생 이야기를 아는 남편에게 심심하면 장난스런 타박을 받곤 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그러실 수가 있소, 엄니”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저리 좋은 딸을” 하며 사위와 함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하듯 웃고 마신다.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안 좋으면 오히려 병원보다는 우리 집에 와 계시는 것을 편안해 하셨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내가 우리 넷째 딸을 안 낳았으면 어쩔 뻔 했겠는가”



전주 한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학술 포럼 찾자리

정성 가득한 찾자리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길

추위가 한풀 꺾였다.

많은 사람을 상대로 찾자리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절대로 쉽지만 않은 일이다. 평소에 차를 접해보지 못했을 일반 사람들에게 차에 대한 호기심과 찾자리의 우아하며 품격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를 접하게 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알리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므로 신경을 쓰며 차도구들을 챙겨서 오늘 한지 포럼에 오실 손님들을 맞으러 경원동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향했다.

처음 한복을 다포 위에 올릴 때는 사실 약간의 망설임도 있었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기는 했으나



전주세계슬로워이드 찾자리 펼쳐 - 전주 팔복예술공장 / 정성복, 박영심 전문사범



전북지부 전문사범
순은주

남의 눈을 의식하기 이전에 짧은 저고리의 밑 선이며 소매의 곡선을 얹전하게 걷어 올렸다.

모시로 된 속저고리 등 옷장 속에 잠들어있던 오래된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다시는 빛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며 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채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두자니 짐이었을 그렁그런 애물단지로 전락했을 옷들이었다.

찾자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각각 달랐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라는 말부터 몸에 걸치는 의복인데 좀 그렇다는 의견들과 누구의 생각이었나? 물으며 바라보시더니 동정의 흰 부분에 차시를 써서 넣으라는 분도 계셨다. 좋은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그 멋진 상상을 실행에 옮길 것이나 손글씨가 별로인 관계로 시는 지어 보았으나 밖으로 들어내기가 쑥스러워 들고만 있다.

어찌 되었든 찾자리라는 것이 배불리 먹자고 차리는 것이 아닌 눈과 입이 즐겁고 마음에 행복한 과정을 불러일으키는 오감이 만족스러운 잠깐 아름다운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찾자리를 준비하는 마음이나 차를 마시는 분들이나 설레기



후백제지방정부협의회 학술대회 다연회
- 한국 전통문화 전당 / 전순경 전문사범, 안진영 사범



20기 대학원 차음식 찾자리 - 전북 차문화 교육관

는 한가지일 것이니 될 수 있으면 현대에 맞게 전통을 중심에 두고 예술성을 가미한 찾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막상 끝나고 나면 뭔가 너무 넘치고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들이 들고는 하니 말이다. 아직도 나는 진정한 의미의 비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다. 멀리 문경에서도 오시고 한지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찾자리며 전주에 관한 관심들이 매우 높으셨다. 전주의 품격이 이 정도라며 대신 자량을 해주시니 들으며 덩달아 어깨가 으쓱하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늘 바쁘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 하던 일을 잠시 멈

추고 고요함 속에서 다관에 차를 넣고 물을 따르고 기다리는 그 잠시, 물에 녹아드는 푸릇한 향기며 주변에 흐르는 고요한 정적감, 부드러운 손동작 등을 통해서 찾잔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의 청량감, 차를 음미하며 느끼는 감사함. 차나무 잎으로 뒤은 잎차(녹차), 발효과정에 따라 차맛이 달라지는 황차, 보이차, 청차, 홍차, 연한 잎을 통째로 가루로 만들어 격렬해서 마시는 가루차 그리고 찻잎으로 만드는 음식까지 있으니 끝없이 내어주는 찻잎이 참으로 신통방통하지 않던가 말이다.

유럽의 화려한 홍차의 찻자리처럼 호화스럽고 배부르게 먹으며 파티 같은 찻자리가 아닌 작고 아담하며 소박하고 멋스러운 한복의 곡선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우리네 규방 문화를 접하며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항상 이런 찻자리를 펼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마시라) 다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라 권하고 싶다. 추운 날 접해본 따뜻한 차 한 잔과 정성 가득한 찻자리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전주한지포럼 찾자리 - 한지산업지원센터

佔畢齋 김종직 선생 관영차밭 조성터 답사기



전북지부 지부장
이 름

코로나로 칩거하다시피 하던 차에 마침 며칠 전에 지리산 힐링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회원들과 함께 함양에 있는 김종직 선생 관영차밭에 다녀왔다.

본 일정에는 없었지만, 진행 측에 특별히 부탁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이다. 함양 상림공원 산책을 마치고 약 30분을 달려가니 함양 휴천면 남호리. 지나치다 얼핏 보면 시골 동네의 작은 꽃밭을 조성해 놓은 듯한 길가에 정자 나무가 서 있는 옆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고, 김종직 관영차밭 조성터비와 유두류록(遊頭流錄)탐방코스 안내판이 나란히 서 있다.

1998년 9월에 함양문화원과 가천문화재단 한국차문화협회가 세운 이 비가 있기에 누구나 쉽게 그 시절의 차문화 실태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나는 개인적으로 이 비석을 세운 것에 감화를 받아 차밭을 갖고 싶다고 베풀기만 하던 일을 실행에 옮겨 2003년에 전북 임실군 운암면에 작은 차밭「雲叢茶園」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었다. 특히故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차문화 발전과 유적 보존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시 생각하니 그림고 감사함을 무엇에 비기랴? 몇 년 전 고사하고 말아 아쉽지만, 하동 도심다원의 천년 차나무에「韓國大茶樹」비를 세우신 업적도 떠올라 새삼 눈시울이 젖는다.

함께한 우리는 고개를 숙여 명예이사장님의 수많은 차문화 업적을 기리며 여기에 곳곳이 엄동설한을 견디는 차나무의 기상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일깨우는 것 같아 한참을 머물렀다.

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선생은 정몽주와 길재로 이어지는 조선초기 사림파의 영수이자 차인이었던 실천 유학자로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둔

정치인이었다. 그 정신이 곧 함양의 목민관으로 부임한 후 공납으로 바칠 차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관영차밭을 조성한 일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본다.

점필재집 10권 茶園二首 并叙에 기록된 함양차밭 조성 경위(1471~1475 함양군수 재임 시)를 여기에 옮겨본다.

「상공(上供)하는 차가 본군(함양)에서는 생산되지 않으므로 해마다 백성들에게 이를 부과하는 지라 백성들은 전라도에서 사오는데 대략 쌀 한 말에 차 한 홉을 얻는다. 내가 처음 이 고을에 부임(1471)하여 그 폐단을 알고 백성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관에서 자체로 구하여 납부했었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열람해보니 일찍이 신라 때(828년, 대림)에 당나라에서 차 종자를 얻어와 命(홍덕왕명)해서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말이 있었다.

아, 우리 군이 바로 이 산 밑에 있는데 어찌 신라 때에 남긴 종자가 없겠는가? 그래서 매양 父老 들을 만나서 그것을 찾게 한 결과 과연 엄천사(嚴川





寺)의 북쪽 죽림 속에서 두어 떨기를 얻게 되었으므로 나는 매우 기뻐하면서
그 땅을 다원으로 만들게 하고 그 부근은 모두 백성들의 밭이므로 그것은 官
田으로 보상해주고 모두 사들여 차를 재배했는데 겨우 수년 뒤에는 제법 번식
할 테니 다원 전체에 두루 퍼지게 될 것이다.
대략 4~5년만 기다리면 상공하는 액수를 충당할 수 있겠거니
그래서 마침내 시 두 수를 읊는 바이다.」

茶園二首 다원이수

欲奉靈苗壽聖君	신령한 싹 올려 성군께 축수코자 하는데
新羅遺種久無聞	신라 때의 전해온 씨 오랫동안 못 찾다가
如今擲得頭流下	지금에야 두류산 밑에서 채취하고 보니
且喜吾民寬一分	장차 우리 백성 일분의 힘 펼 것이 기쁘네.
竹外荒園數畝坡	거친 대밭 옆 두어 이랑 두둑에
紫英烏觜幾時誇	자영 조취 어느 때나 자랑할까
但令民療心頭肉	다만 백성의 마음병을 치유하게 할 뿐
不要籠加粟粒芽	날 알갱이 싹 바꾸니 채우긴 쓸데없네.

※ 자영, 조취는 차 이름, 속립이는 차싹 이름이다.



이같이 함양에서는 생산도 안 되는 차를 궁궐에
상납하느라 고생이 심한 군민들의 애로를 알고 관
영차밭을 만들게 된 김종직의 애뜻한 사연이 담긴
시를 읽으며 그의 아름다운 애민 정신과 더불어
차를 좋아하던 그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다부(茶賦)를 쓴
한재 이목(1471~1498)선생은 왜 그의 스승인 점
필재가 이토록 애절한 마음으로 1472년경 함양에
일군 관영차밭의 사연을 한 줄도 기록하지 않고
중국의 차생산지만을 나열해 놓은 것일까?
그는 선생의 관영차밭을 몰랐던 것일까?
또한 이 비를 세우고 차나무를 심은 지 20여 년이
흘쩍 지났음에도 차나무가 번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군민들이 정성으로 가꾸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고 주변에 좀 더 넓은 차밭을 경작하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함양 관영차밭을 만든 김종직 선생의 애민
심과 그것을 찬양하여 비를 세운 차계 어르신의
큰 뜻이 올바르게 전승될 터이니 말이다.



한편 유두류록(遊頭流錄)은 김종직 선생이 1472
년 8월 14일~18일까지 4박 5일간 지리산 천왕봉
을 비롯한 곳곳을 유람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인데 요즘의 둘레길 탐방일지 같은 것이
다. 다음 기회에 꼭 이 탐방코스도 따라 해 봐야지
싶다.



부회장단 2022년 명예이사장님께 성묘

설날을 맞이하여 부회장단 성묘하다

모처럼 온화한 날씨에 부회장단이 설날을 맞이하여 성묘를 다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인원만 참석하게 되어 아쉬움이 많았다.



2022년 1월 28일 오전 11시 협회 부회장단이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 성묘를 다녀왔다. 모처럼 온화한 날씨 덕분에 성묘할 수 있게 되어 명예이사장님께서 보살펴 주는 것 같았다.

김가영 부회장님께서 떡과 전, 나물 등 차례상에 들어갈 제수물을 준비해 주었고, 차영민 부회장님께서는 케이크와 꽃을, 박광옥 부회장님께서 떡과 만두, 사골국물을 우려내 오셨다. 강순란 부회장님께서는 차례상에 들어갈 여러 가지 과일과 부회장님들께 산삼 삼계탕을 대접해 주었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7년이 되었다.

명예이사장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과 고귀한 인품에 대해 부회장님들께서는 추억했으며, 명예이사장님께서 가셨던 차인의 길에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오미크론으로 지방 및 각 지역의 지부장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2월 26일에 있을 이사장님 제7주기에 맞춰 다시 한번 모임을 기대하며, 성묘를 마쳤다. 🍵

협회 2월 임시이사회 개최

조영아 인천지부장, 이금숙 이사, 노영숙 이사 선출

협회는 지난 2월 15일 협회 3층 교육장에서 2월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각 지부장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임시이사회 의안건은 2022년 협회 임원 추천 건으로 인천지부 조영아 전문사범을 인천지부장으로 선임하는 안건과 인천지부 이금숙 전문사범과 광주지부 노영숙 전문사범의 이사 선출건이었다. 인천지부 이막동 지부장의 임기 만료로 선임된 조영아 전문사범은 한국차인연합회 창립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신계 창립 회원으로 활동했다. 1993년부터 한국차문화협회 전문사범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며,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이수자이기도 하다. 왕성한 활동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조영아 지부장을 인천지부장으로 선임하는 데 협회 모든 회원이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금숙 이사는 대학원 3기로 2000년 한국차문화협회 인천지부 총무를 시작으로 협회 활동을 시작했다. 전문사범, 공로상, 지도사범 등을 수료하는 등 협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노영숙 이사는 1999년 협회 지도사범을 졸업하면서 협회와 인연을 맺었다. 전남지역에서 지역 활동과 협회 활동이 인정되어 이사 선임에 선임되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신임지부장으로 선출된 조영아 지부장과 이금숙, 노영숙 이사의 선임을 축하하며, 앞으로 협회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차문화협회 30년사 발간

우리의 소중한 차문화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 역할 기대

협회는 지난 1979년 1월 한국차인회 창립을 시작으로 한국 차문화사의 중추적 소임을 수행에 왔다. 한국차문화협회는 지난 30년 동안 순수한 한국의 차문화 단체로 그 위상을 드높여 왔다.

1991년 4월 한국차문화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차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협회는 2021년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차문화협회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다. 협회가 창립하기 전이었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우리의 차문화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이때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뜻있는 차인들이 모여 한국의 차문화를 연구하고 차인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차문화협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차문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한국차문화협회가 설립하면서부터였다. 협회는 차의 날 지정, 차시배지 후원비 건립, 전국 차인큰잔치, 청소년 차예절 경연대회, 차문화대학원 개강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또한 국내외 차인 발굴 및 차문화 보급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협회는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한국차문화협회 30년사』에 녹아 내려고 노력했다. 자료를 찾는다고 노력했으나 누락된 사진이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역사책을 가졌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협회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 도전정신을 담아낸 이번 『한국차문화협회 30년』 발간 사업에 최소 연 이사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협회 30년사 발간을 위해 매주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교육위원들의 노고 또한 가볍지 않았음을 밝힌다. ☎



2022년 차문화 봄호 편집 회의 및 임시 회의 개최

차문화 편집위원
경기도 헤이리에서 회의 개최

협회 교육위원은 지난 1월 25일 오전 11시 경기도 일산 헤이리에서 차문화 봄호 편집회의 및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협회에서만 회의를 가졌던 관례를 깨고, 탁 트인 경기도 헤이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경기도 헤이리는 다양한 문화 장르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문화예술마을이다.

겨울 풍경을 감상하며, 차문화 봄호 편집회의, 대학원 교육 일정 조율, 동계연수회 개최 여부 등 협회 주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위원들은 회의를 마치고 헤이리 주변을 관광했다. 특히 향아리 갤러리는 그 옛날 고향의 '장독대'가 연상되었다. 마을 이름은 경기 파주지역에 전해져오는 전래농요인 '헤이리 소리'에서 따왔다고 한다. 헤이리의 특색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 마을, 최고의 건축가들이 설계하는 건축전시장, 광장과 길이 예술작품으로 조성, 예술성 높은 교량을 위해 현상 설계 실시, 휴먼스케일을 살린 스카이라인. 자연 친화적인 수경공간, 최첨단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내세운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전시와 공연을 구경하고 차와 간단한 식사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많아 소모임 등 소규모 회의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



회의를 마친 교육위원들이 향아리박물관 앞에서 기념촬영



봄이 오는 길목에서

아산지부장 김태임

찬바람에 훈풍 불더니
꽃눈이 외투를 벗는다
개나리 진달래도 예쁘지만
산수유 매화가 나를 쳐다본다
하루해가 저
해 질 무렵에
처음 피는 꽃 마지막 보는 꽃
차잔에 앉아 내게 말을 건넌다
차 한 잔 나누자고.

※ 전국에서 매화가 첫 번째로 핀다는 광양 소학정에 핀 매화꽃을
가루차 녹차에 띄워 음미해 보며 차와 더불어 봄의 향기를 느끼는 찾자리.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부사랑방 | 경남지부 · 광주지부 · 교토지부
(가나다 순)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 순천지부 · 아산지부
전남지부 · 전북지부 · 충북지부

(사)한국차문화협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수도권 집합금지 규정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의 사진 중 인원 초과와 경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촬영된 것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경 남 지 부

사범반 겨울 특강 가져

탱글탱글 양갱과 말랑 세콤 젤리 만들기

경남지부에서는 연수회를 대신하여 두 번 특강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식으로 '양갱만들기'이다. 우리 집에서 10km 거리인 고성군 회화면 <다연가>를 찾아갔다. 꼬불꼬불 산길을 갈 때는 길을 잘못 들었나 생각했는데 산 중턱에 산북마을 안내판이 보이고 찾집 간판이 서 있다.

양갱은 재료만 준비되면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숨쉴 틈도 없이 용기가 난다. 모양도 이쁘고 맛도 좋아 만들어 보고 싶은 다식이라 정말 기대된다. 정재운 사범부장님이 다식 재료와 실리콘 다식판 등 도구를 두 박스 준비해 오시고, 왕 사범님은 다연가 주방과 살림을 내주셨다. 한천을 물에 불리고 냄비에 끓여 설탕과 양금을 녹이고 가스 불을 조절한다. 올리고당과 색소를 약간 넣고 졸인다. 불린 한천이 끓기 시작하면 저어주는 데 불을 끄고도 계속 저어준다. 소금은 제일 마지막에 조금 넣고 여러 가지 모양 틀에 부어 식힌다. 갈때기 모양 스테인리스 도구로 거꾸집을 채워 반침에 올려 실온에서 식힌 후 냉장고에서 넣어 굳히면 만들기 완성이라한다.

백련초, 가루차, 팔양금이 모양틀에 굳어지는 동

안 도구를 씻고 주방을 정리했다. 다 굳어진 양갱을 거꾸집에서 떼어 내는 것도 재미있다. 분홍, 연두, 갈색의 탱글탱글한 꽃 모양 양갱이 이쁘다. 지부장님이 오늘은 삼색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호박과 백 콩 양금을 더하면 노랑과 흰색으로 오방색 양갱이 된다고 알려 주셨다.

오늘 교육은 사범부장님, 점심은 지부장님, 간식은 교육부장님과 진동지회장님, 과일도 함안지회장님이 준비해 주셨다. 차와 장소는 다연가 선배님이 통째로 내어주셔서 사범반 회원들과 즐겁고 편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정말 감사드린다.

글_63기 사범반 김난희



추위를 뚫고 매화 꽃망울 맺듯 2급 사범을 매듭짓다

지부장님, 고문님, 선후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쳐

봄은 어느덧 문 밖까지 왔지만 차가운 바람은 옷깃을 여미게 한다.

그러나 머지않아 봄의 기운으로 나뭇가지 끝으로 매화꽃 망울망울 피어나고, 봄 향기 가득한 날 경남지부에 첫 발걸음하여 어느새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같이 수료하는 한이분 회원과 인성차문화지도사범 2급 자격검정 시험을 준비하며 걱정이 앞섰다. 시험 범위와 유형 등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고 고민만 하였다.

사범반 기본 교재인 '한국의 차문화'를 차근차근 공부하라는 교육부장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 시작하여 문제 유형을 접하고 준비하였다.

읽어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스스로 낙담하고 또 읽어보았다. 그렇게라도 하고 보니 자격 검정 시

험이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생활차, 선비차, 규방다례 실기를 준비할 때는 지부에서 연습하였다. 연습 때마다 지부장님과 교육부장님뿐 아니라 부장님, 지회장님, 선배 사범님들 오셔서 절이나 행다 자세도 고쳐주고 간식과 찻자리도 도와주고 뒷정리도 해 주셨다.

그동안 개인적인 일들로 인하여 여러 해에 걸쳐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지부장님과 고문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 후배님들의 도움으로 수료할 수 있었다. 참으로 존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수료 후에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경남지부의 사범반 수업과 행사에 힘을 보태겠다.

글_사범반 윤혜경



광 주 지 부

2021년도 보수교육 시행

나누면서 배우는 즐거움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방역수칙에 우선시 되면서 본의 아니게 모여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은 뒤로 미루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차문화예절지도사 보수교육은 협회의 배려와 지부장님의 노력으로 가까운 광주지부에서 받아 감사함으로 참여하였다. 단아하게 한복을 입으신 지부장님께서 개인 방역부터 거리두기, 환기 조절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안심하고 보수교육에 임할 수 있었다. 오전 첫 시간 뽀글부터 큰절, 상례절까지 동작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며 몇 번이고 연습해서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외부 식당 이용도 위험하다고 김치명인답게 점심 준비도 정성스럽게 하셔서 맛있고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내

서 다시 한번 지면을 빌어 감사함을 전한다. 오후 시간에 생활차, 선비차, 가루차, 규방다례를 영상교육과 지부장님 시연으로 바뀐 행다법을 강조해 주시고, 행다 하는 손길이 어색하지 않도록 귀찮아하지 않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을 시켜 주셨다. 약속한 보수교육 시간을 훨씬 넘겨 힘들기도 했지만, 보수교육 시간에 배운 것이 오롯이 내 몸에 녹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한잔의 차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고, 차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평상심으로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가는 차 생활은 삶의 활력이며 홀로 마셔도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글_지도사범 여향 박은희



지부장 박혜란

제20기 한국차문화대학원 1학기 수업을 마치고

知天明에 茶를 만나 茶의 色·香·味에 빠지다

한국차문화협회 최고 교육과정인 “제20기 한국차문화대학원” 개강식과 함께 강정자 경남지부장님의 “핵심 가치 8 덕목과 생활다례 연관성” 강의를 비대면으로 들었다. 인성교육진흥법 선포로 한국차문화대학원 전문사업 취득 후 인성예절지도사로 역할과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성교육 핵심 가치 8 덕목과 차생활을 어떻게 연결해 학생들을 지도할지 알게 되었다. 하치권 강사의 “교육과정 이해”는 1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교육과정의 활동, 수준, 철학, 유형과 모형 및 주요 이론과 인성예절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방법 제시까지 배웠으며, 한국예절교육 연구소장인 전수진 강사는 “어린이 인성예절 지도법” 강의에서 논어(論語)의 「안연편」과 예기(禮記)의 「곡계상편」, 맹자(孟子)의 「양혜왕편」의 예(禮)를 현대 교육 현장에서 어린이가 인성예절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 계획안과 지도안을 안내해 주셨다.

또한 전북지부장님이신 이림 부회장은 “가정의례 준칙의 관·혼·상·제” 강의로 가정의례준칙의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수연례 등을 알기 쉽고 차분하게 잘 가르쳐 주셨다. “한·중·일 차문화사”는 중앙대학교 박전열 교수님의 명강으로 차문화를 생리적 활동(음식, 취침, 배설, 생식)과 문화적 활

동(노동, 제사, 놀이)으로 나누어 차의 기원을 비롯한 각 나라별 역사, 문화, 사상 문헌을 근거로 가르쳐 주셨고, 지장 스님은 “차와 함께 하는 마음공부”라는 제목으로 차는 단순한 기능적 음료가 아닌 정신수양의 매개체로 활용되었음을 알게 해주셨으며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 이해와 자기완성으로 새로운 사물과 새로운 시선으로 나를 통찰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茶와 불가분의 관계인 “茶食 만들기”는 각 지부별 실습으로 대학원생들이 솜씨를 뽐내어 작품들을 밴드에 올렸는데 찻상 차리기 등 예술적 감각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2학기에 계획하고 있는 “전통다례와 오늘날의 차생활”과 “청소년예절지도법”과 “서양의 차문화”, “제다법 비교와 차품평” 그리고 “규방다례 인성예절교육”까지 모든 교육과정이 1학기 공부와 더불어 기대된다. 글_한국차문화대학원 20기 회장 주미경



교 토 지 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차문화 공부 매진

무형문화재인 규방다례를 배운다는 자부심 커

작년부터 올해까지 교토지부는 꾸준히 차문화에 대한 학습과 행다 연습을 지속해 왔다. 2021년 연말에는 「시마이게이코」 즉, 행다 마무리 연습을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다.

모든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한 번씩 생활차와 행다를 연습하면서 서로서로 부족한 점을 도왔다. 또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규방다례를 배운다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연습 후에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찻그릇, 다도구를 서로 교환하고, 그 매상의 일부를 지부 활동에 기부하는 바자회 활동을 펼쳤다. 서로의 취향도 알게 되었고, 또 출품된 다도구와의 인연 등 화젯거리로 종일 함박웃음이 있는 즐거운 모임의 시간이었다.



지부장 조화미



2022년 새해 첫 차 연습을 하다

한국의 규방다례 이수자들로부터 배우고 파

교토지부는 새해에도 「하즈가마」 즉, 새해 첫 차 연습을 회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첫 행사로 규방다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회원 모두는 열성적으로 서로 지도하는 등 교육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국에서 규방다례 전수자와 이수자들이 교토에 와서 직접 지도해 주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교토지부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규방다례 시연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하루 빨리 한국에서 규방다례 전수자와 이수자들이 방문하여 규방다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옛날 함께 가르치고 지도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대구경북제1지부

지도사범 심의 지부별로 시행

채경숙, 허윤경, 구영희 회원 심의 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심해진 관계로 지도사범 심의를 각 지부별로 시행했다.

지난 1월 8일 필기시험, 1월 22일 실기심의를 마쳤다. 대구경북제1지부는 채경숙, 허윤경, 구영희 회원 3명이 심의를 보았다.

적은 인원 이어서 방학도 잊은 채 열심히 공부하며 3년이 되었다.

직장을 나가면서 시간을 쪼개어 공부한 3명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아마도 대학원(전문사범) 입학도 할 것이다.

선후배가 서로 얼굴을 보며 배려하고 칭찬해주고 다독여주는 멋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쉽지만, 앞으로 따뜻한 봄날 미뤄두었던 연수회와 차인들

의 행사가 우리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2021년 심의를 본 전국 사범님들 좋은 시간을 기대하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_대구경북제1지부장 박경숙



지부장 박경숙



서울제1지부

서울시 어르신돌봄가족센터 온라인 교육

비대면으로 진행, 많은 호응을 얻다



지부장 이석예

2021년 끝자락을 앞두고 서울시 어르신돌봄가족센터의 봉사자들을 위한 차수업이 진행되었다. 4차시로 진행된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갑작스레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교육방식을 비대면에 맞게 간결한 자료를 준비하고 수정을 하여 일반인 대상으로의 나의 첫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삶의 패턴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서서히 진행되던 온라인 문화, 온라인 쇼핑, 비대면 수업 등의 언택트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급물살을 타고 무섭게 성장세를 보이며 사회 속으로 파고들어 정착되어 가고 있다. 결

코 피할 수만은 없었던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며 생각이 참 많았다. 우리 차문화는 색. 향. 기. 미를 바로 앞에서 오감으로 느끼며 예를 전하는 문화인데 온라인으로 얼마나 전달이 되고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시작된 긴장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차를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알려줘야 지루함 없이 차문화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지 이 궁리저 궁리하며 준비를 하였다. 미리 보낸 키트를 앞에 놓은 봉사자들에게 우선 차의 개념과 다구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천천히 차 우리기를 해보았다. 온라인으로 전달하기에는 매우 부족했을 텐



데 모두 신기해하고 따라 하며 좋아하는 모습들을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차에 대한 궁금증에 관한 질문을 받아 장르도 다양한 질문들을 막힘없이 답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차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온라인 차수업을 통하여 또 하나의 가능성 있는 수업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온라인 수업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과 차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점

점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인. 의. 예. 지. 신인 오상의 덕이 점점 희미해지는 요즘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차와 더불어 전파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차는 바로 앞에 두고 마시며 공부하는 게 진리이다. 위드(with) 코로나 세상을 맞이하더라도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며 가까운 시일 내에 차를 앞에 두고 마주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글_서울제1지부 지부장 이석예

2021년 12월 비대면 종강식 색종이 활동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다

매년 지도사범과 전문사범과 함께 했던 종강식처럼 오순도순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12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함께 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 2021년 하반기 종강식은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제1지부 활동을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 시간에는 색종이 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소통과 더불어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져 보았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각 지부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와 다르다 해서 싫어할 이유도 적지 않을 것이다. 나와 다른 많은 가치관과 행동들을 존중하면 함께 웃을 수 있다. 임인년에는 모두와 소통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글_전문사범 송영아



순 천 지 부

순천지부 회원 한복차림으로 박물관 견학 조선 시대 유물인 '함' 전시회 관람



2021년 11월 5일, 순천지부 회원들은 모처럼 한복차림으로 순천시립 뿌리 깊은 박물관으로 나들이를 나갔다. 박물관 안에 자리한 거문고의 명인 백경 김무규 선생님의 고택에서 찻자리를 마련하여 행복한 나눔의 시간을 즐겼다.

그뿐만 아니라 박물관에 「함, 담다. 그리고 품다.」의 특별 전시회가 열려 다양한 함들이 담고 품은 가구의 소품들을 관람하였다.

특히 이날 전시회는 한창기 선생님의 유물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함에 대한 전시로 조선 시대 왕실에서 사용한 주칠함에서부터 서민들이 사용했던 함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순천 청암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 교육 실시 인성차문화예절 교육 총 30시간 지도

순천지부에서는 순천 청암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인성차문화예절교육을 총 30시간에 걸쳐 지도하였다. 이 교육은 학생들이 다례 교육을 통하여 차생활의 기본 매너를 배우고 익혀 교육 현장에서 유아들에게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동안 열심히 수업에 임한



유아교육과 학생 10명은 12월 17일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코로나로 조금은 힘들고 고단한 일정 속에서도 청암대 학생들을 개별지도 하는 등 다각적으로 차생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시험

생활차, 가루차, 규방다례 등 행다법 연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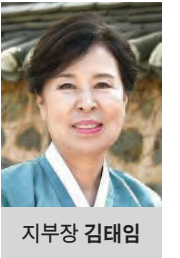


지난 2년 동안 사범 교육을 받은 순천지부 교육생 10명은 2022년 1월 24일 오후 2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시험을 보았다. 이날 자격시험 심사위원으로 서명주 이사님이 수고해 주셨다. 그동안 사범 교육생들은 규방다례를 비롯한 생활

차, 가루차의 행다법을 꾸준히 연마하였으며 특히 규방다례 행다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전통 존중, 예절 존중, 과학 존중, 생활 존중, 청결 존중 등을 실천하며 2년의 차생활 속에서 어엿한 사범의 자격을 갖추어 간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아 산 지 부

전통 문화를 통한 예절과 품성교육 전통 문화의 귀중함을 알리는 기회가 되다



지부장 김태임

아산지부는 천안 신당고등학교에서 전통 문화를 통한 예절과 품성교육을 실시했다. 아산지부 김태임 지부장의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전통 문화를 통한 예절과 품성교육은 그동안 코로나19로 하지 못했던 교육이었기에 단비 같은 교육이었다.

차문화예절에서는 차 우리기, 예절과 품성교육에서는 바른 몸가짐 교육이 있었다. 복식문화 수업에서는 한복의 우수성과 한복 바르게 입어보기, 배례법 절하기 수업은 힘들지만 좋은 체험이었다고 교육생들은 입을 모았다.

세계 차문화 시간에서는 홍차, 중국차, 녹차 시음회를 갖고, 차맛을 본 후에 느낀 대로 발표하는 시

간도 가졌다.

이번 수업을 통해 전통 문화의 귀중함을 알고 바른 인성과 인격을 갖춘 훌륭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다도와 인성 예절교육

천안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예절 교육

아산지부는 천안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21명을 9명씩 4회로 구성하여, 1일 3시간씩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으로는 차 우리기와 손님께 대접하기, 예절시간에는 학교예절, 언어예절, 공공질서 지키기 등을 교육했다. 이어서 진행된 한복 입는 순서와 바르게 입어보기, 배례법과 절하기, 다식 만들기 등으로 진행했다.

마지막 시간엔 인절미 콩고물 문혀서 먹기 좋게 자르기 체험과 맛보기를 했다. 비교적 체험교육에 흥미를 많이 느꼈다.

센터 선생님께서 수업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수업을 원활이 끝낼 수 있었다. 코로나의 불안 속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조심스럽게 수업을 마쳤다.



아산지부, 충북지부 합동으로 보수교육 시행

모두가 한 자리에서 교육 받기를 희망한다

아산지부는 충북지부 회원들과 함께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어서 무엇보다 반가웠다. 그동안 서로에 대해 안부를 묻는 등 차실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코로나로 2년 만에 만남이었다.

보수교육은 생활차, 선비차, 규방다례, 배례법 등으로 진행했다. 영상과 행사 수업으로 동시에 진행했다. 모두 자태가 곱고 진지했다. 역시 오래된

차인의 모습이다.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다담시간엔 많은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 벗고 차문화, 교류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보수교육을 마무리했다. 내년 보수교육엔 이사장님 모시고 전국교육생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전 남 지 부

2021년 하반기 종강식 가져

무아차회를 통해 자아 찾기

전남지부는 2021년도 2학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과정 종강식을 지난해 12월 4일, 6일 양일간에 걸쳐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전남지부는 코로나19가 광주지역에서 확산하여 20여 명 이상 모이는 게 조심스럽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 2회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 언택트 수업을 가져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졌다. 종강식에 이어 무아차회가 펼쳐졌는데 소규모로 이루어졌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쳐있는 회원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갖는 찻자리에 웃음꽃이 피었다.

전남지부 회원들에게 ‘차명상’ 프로그램을 재능기부하고 있는 이정희 지도사범은 “무(無)를 이해해야 유가 창조되고 무와 유는 순환 관계에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정신적인 번뇌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 점에 있어 무아차회는 회원들에게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무아차회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찻자리를 준비해 차를 우리고 차를 대접하는 것을 가장 기본

적인 원칙으로 한다. 또 우주 만물이 나와 네가 없는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무아(無我)의 진정한 의미로 보는 것이다.

찻자리의 구조는 둥근 원형이나 사각형 등 모양에 상관없이 첫 번째 자리와 마지막 자리가 만나도록 하여 모든 찻자리가 끊어짐 없이 이어지도록 한다.

글_사범교육생(2022년도 재무) 조화영



지부장 서난경

1급 전문사범 8명, 2급 지도사범 14명

3일 동안 보수교육 시행

전남지부는 지난해 11월 12일, 13일, 27일, 3일 동안 2021년도 보수교육을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11월 12일에 실시된 1, 2급 전문, 지도사범 보수교육은 이해자 수석 부회장과 서명주 이사님의 지도로 참석자들은 규방다례와 가루차, 생활차 행다법을 익혔다. 12일에는 2급 지도사범들의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서명주 이사님이 배례법과 규방다례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생활차 행다는 서난경 지부장님이 지도를 담당해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알찬 교육이 되었다는 참여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13일에는 1급 전문사범들의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해자 수석부회장의 지도로 규방다례와 가루차, 생활차 행다법을 익혔다.

이날 보수교육에 참여한 서희수(회민지회장)은 “일선에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규방다례는 늘 어렵고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수교육을 준비한 서난경 지부장은 “행여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되었지만, 두 분의 규방다례 이수자님을 모시고 실시해 어느 때보다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보수교육에 임해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했다.

글_사범교육생 (2022년도 총무) 김나라



목포대 농업경영자 과정 졸업식 세책례로

차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진다례 운영

전남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 목포대 산학협력관 회의실에서 농업경영자과정 졸업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전통 세책례 수료식을 지원 나갔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졸업식은 1부는 손운진 박사의 사회로 이루어졌는데, 일 년 동안 공부한 결과 전라남도 도지사상에 이춘배, 목포대 총장상에 김형숙, 지역특화작목 산업화센터장상에 소재관 씨가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2부는 서난경 지부장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일 년 동안 가르침을 주신 박용서 학장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세책례로 차로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진다례가 펼쳐졌다. 이날 훈장을 맡은 박용서 학장님은 “각 분야에서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앞날에 농경 과정이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졸업식을 세책례로 대신하는 이번

졸업식은 경험해 보지 못한 감동이 있어 즐거움이 배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박용서 학장님이 개개인에게 내리는 단자 수신이었는데 단자 수신은 성적표 대신 학생의 고칠 점을 한글자로 적어 내려 주는 것인데 이날 준비한 단자 수신은 졸업생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격려 말을 써 봉투에 담아 내려 훈훈함을 더했다. 세책례란 보통 조선 시대 서당에서 책을 한 권 땔 때마다 학동이 훈장님께 감사함을 표시하는 전통 행사로 다른 말로는 책거리, 책씻이라고도 한다. 이날은 떡과 차를 마시며 학문을 함께하는 선비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이때부터는 ‘해라’체가 아닌 ‘하계’체로 말했다. 한편 서난경 지부장은 목포대 농경과정 세책례 지원에 앞서 지난 11월 16일 서명주 이사님과 김종덕 박사를 모시고 전남지부 회원들이 세책례를 익



힐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이날 행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전남지역 소규모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세책례를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글_지도사범 이정희

영광 염산초등학교 학부모 다도 예절 교실 열어

대학원생들 교생 실습 가져

전남지부는 지난 12월 15일 영광 염산초등학교 강당에서 1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다도 예절 교실을 가졌다. 이날 다도 교실은 전남지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다도 예절 교실을 먼저 교육하고 명절에 활용할 수 있는 꽃감 오리기를 선보여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지역주민들의 문화 활동 지원 차원에서 준비한 박철수 교장은 “학생들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해서 학부모들께도 다도 교육을 소개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교육 철학과 다도 교육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예절을 습득시켜 글로벌 인재로 만들기 위해 매년 다도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경자 전문사범, 고선영, 박소미, 정미경, 추양미 대학원 재학생이 참여했다.

글_전문사범 김경자



2급, 지도사범 차문화예절지도사 심의시행

김판인 고문, 이해자 수석부회장 심사

지난 1월 22일 2급 지도사범 차문화예절지도사 심의가 김판인 협회고문님과 이해자 수석부회장님의 심사로 규방다례와 선비차 심사가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있었다.

이번 심의에는 총 12명이 참여했는데 오전에는 3인 1조로 선비차 심의가 오후에는 2인씩 규방다례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집합 금지 지침이 내려진 가운데 치러진 관계로 시험장에는 엄격한 인원 제한과 철저한 방역 후에 치러졌는데 대학원생들이 나와 찻잔을 매번 삶는 등 수고로움을 더해 빈틈없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심의 역시 마스크를 쓰고 심의를 치르는 상황이 전개되어 차 맛을 차 색으로 가늠할 수밖에 없었지만 꾸준한 연습과 심의에 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가짐이 진지해 두 분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언제나 전남지부에 힘을 보태주신 김판인 협회고문님은 심사평을 통해 “차색과 자태에서 다들 열심히 한 모습들이 보인다”라며 “차생활로 코로나를 극복하자”라고 당부했다.

또 이해자 수석부회장님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험 준비를 잘해준 전남지부에 협회를 대신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규방다례가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 차생활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는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김숙, 서태자, 진순선 선생님은 입식과 좌식 행다를 펼쳐 동기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글_대학원 교육생 추양미



다완 만들기 체험 특강 실시

이치헌 작가 흙 이야기에서

전남지부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일환의 하나로 다완 만들기 체험을 이치헌 작가 공방인 흙 이야기에서 지난 11월 14일 12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체험에서는 이치헌 작가의 세계 도자기 역사와 다완에 대한 이론 수업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실기뿐만 아니라 이론도 곁들인 알찬 수업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체험에 앞서 전남지부는 상반기에도 다완 체험을 가진 바 있으며 이 밖에도 떡 케익 만들기, 규방공예, 공예차 만들기, 티 블렌딩, 차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들 간에 우애를 다지는 데 힘쓰고 있다. 글_교육생 손윤진



준사범 차문화예절지도사 심의 가져

8명의 교육생 참여

지난 1월 8일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하반기 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심의가 서명주 이사 심사로 8명

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다. 이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집합 금지 지침이 내려진 가운데



치러진 관계로 오전에 필기시험을 오후에 실기시험이 치러졌다. 이번 준사범 심의는 작년과 다름 없이 마스크를 쓰고 심의를 치르는 웃지 못할 상

황이 전개되었지만 참여한 회원들은 진지하게 임해 심의장은 긴장감이 돌았다. 이날 심의를 마친 고효주 교육생을 비롯한 몇몇 회원들은 사범과정에 진학해 차문화를 더 공부해 실력을 연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실기심의를 오전 인성예절지도사 필기시험을 치른 고선영, 추양미 대학원생들의 봉사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준사범 회원들은 서명주 이사와 보림제다 (서희주 전문사범)에서 실력을 연마했다.

글_대학원생 고선영

설문으로 조사해 이정희 지도사범의 박사논문의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옥일화 회원은 “명상 자세가 가부좌여서 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회가 거듭될수록 자세도 잡히고 마음의 작은 변화가 느껴져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명상법과 호흡명상을 집중하여 교육한 차 명상 프로그램은 학교에 접목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했다. 글_교육생(2021 총무) 이경희



차 명상 시행

11월 첫째 주 토요일 수업 이경희

전남지부는 지난 11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차명상” 특강을 10회 개최하고 있다. 이정희 지도사범(목포대 박사수료)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이번 특강은 15명 정도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는데 호흡 명상, 한마음 명상, 음악 명상, 오색차 명상, 다선 명상 등 다섯 종류의 명상 프로그램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차 명상 이전과 이후의 심리상태를



전남지부 20기 대학원생 종강식

12월 18일 다식 만들기 진행

전남지부는 지난 12월 18일 20기 대학원 종강식을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전남지부 대학원생과 선배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종강식은 다식 만들기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꽃감 오리기, 꽃감 호두말이, 땅콩 옷 입히기, 무화과 정과를 만들어 찻자리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전남지부 대학원생들은 교생 실습과 봉사활동을 함께 보내면서 우의를 돈독히 다지고 있어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한편 전남지부 대학원생은 매달 서난경 지부장과

동영상 수업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고 질 높은 수업을 추구하고 있다.

글_대학원생 정미경



전 북 지 부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 개최

전국 규모로 확대 시행, 총 98명 접수



지부장 이 림

지난 16년간 실시해오던 전북청소년차예절대회를 올해부터는 전국 규모로 확대해 시행했다. '2021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는 코로나 시국을 고려하여 비대면 형식을 취해 10월 초 순부터 20일간 동영상 접수를 받거나 신청을 받고 직접 학교 등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해오는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전북 및 전남지역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및 일반부를 포함한 98명이 동영상으로 접수하였다.

전북지부 전문사범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접수 순서대로 동영상 심사를 시행하고 10월 26일 결과발표를 인터넷에 공지하였다.

대상에 전북도지사상을 수상한 소예령(전주대),

서민재(전주 영생고), 김소정(전주 풍남중)을 비롯해 20여 명이 최우수상, 우수상 등의 상장과 상품을 수상하였다.

동영상으로 심사하는 것이 여러 날 심사해야 하는 점과 촬영 출장 등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찻상머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익힌 예절과 행다례를 평가할 기회가 된 점이 뿌듯했다.

특히 인성교육과 차예절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어디든 간다는 사명으로 회원들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다.



2~3급 사범자격심사 실시

전북 차문화 교육관

전북지부는 지난 2022년 1월 8일 2급 배나래 사범교육생과 박동진, 소유미 회원이 3급 자격심의를 받았다.



운남성 농업대학교와 차문화 교류

우리의 규방다례와 중국의 다예 시연

전라북도는 중국 운남성과 2009년 10월 자매우호결연을 체결하여 문화교류를 해오던 중 지난 11월 17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안으로 비대면 차문화교류를 진행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운남성 농업대학교 부총장과 전북지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양국 차문화를 함께 나누고 서





로 차의 맛을 비교 품차하며 중국의 다예 시연과 우리의 규방다례 시연, 홍차 행다법 등을 감상하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전라북도 정읍에서 생산된 현암녹차와 이림 지부장이 임실 운설다원에서 직접 가꾸고 만든 홍차를 운남성 농업대학교 여러분에게 선보였다

또한, 기천요의 백자 3인기 2벌을 선물하고 운남성 농대 차 학과로부터는 보이숙차와 고수홍차, 건수자도 2벌을 각각 교환하였다.

참여한 20여 명의 사범은 이번의 교류를 계기로 앞으로 운남성과의 차문화 교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북지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정 수료생 필기, 실기심의 갖다

4학기 전과정을 수료한 박미경, 음혜진 예비사범 심의



코로나19로 각 지부에서 심의를 보게 되어 아쉬움 속에 1월 24일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필기, 실기심의를 <효동원>에서 가졌다. 4학기 전과정을 수료한 박미경, 음혜진 4기생들의 사범심의는 김영희 상당지회장, 이정애 충북지부 1기 사범 심

의로 진행되었다. 두 예비사범이 떨리는 마음으로 필기 심의와 생활차, 규방다례 심의를 거치며, 첫 입학했을 때의 어설픈 모습 대신 충분한 연습으로 의젓하게 차를 내는 모습은 보는 이를 흐뭇하고 즐겁게 했다.



인성교육예절지도사 1급 자격 필기시험의 갖다

충북지부 교육장 효동원에서 가져

코로나19로 각 지부에서 심의를 보게 된 아쉬움 속에 차문화대학원생 정미식, 정운경, 임미희, 정미영 예비 전문사범은 1월 24일 인성교육예절지도사 1급 자격 필기시험을 충북지부 교육장 효동원에서 가졌다. 4명의 예비 전문사범은 좋은 성적으로 무난히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축하하며 앞으로 차문화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



세종시 윤빛어린이집 다도교육 진행하다

바른 몸가짐으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 배워

충북지부 허윤숙 전문사범과 이주현 사범(유원대 교수)은 10월부터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세종시 윤빛어린이집 다도교육을 펼치고 있다.

7세 3개 반을 중심으로 다도와 예절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예절바른 몸가짐으로



친구와 차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고 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 3급 과정 종강식 갖다

우리 차문화 이야기 특강도 가져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3급 과정 종강식을 12월 13일 충북지부 교육장 <효동원>에서 가졌다. 심의를 앞둔 4학기생들이 규방다례 시연을 하였고, 특강으로 <우리 차문화 이야기>를 지부장님 지도로 공부하며 우리 차문화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다.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차문화에 대해 생각하며 건강한 겨울을 기 대해 본다.

울봉유치원 설맞이 예절교육 펼치다

허윤숙, 전근화 전문사범 봉사

허윤숙, 전근화 전문사범은 2021년 12월 28일 청주 울봉유치원(원장 홍여찬 님) 5세 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설맞이 예절교육을 가졌다. 설을 맞아 세배하는 법을 중심으로 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펼치며 유쾌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가졌다.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세계티클래스>개강

김영희, 김선경 사범 우리차 중심으로 강의

충북지부는 3월 8일 2022년 1학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과정인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세계티클래스> 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낮반은 김영희 충북지부 상임지회장이, 저녁반은 김선경 전문사범이 생활차 실습을 중심으로한 우리 차문화를 교육한다.

새내기 사범 지부발전기금 전달하다

박미경, 음혜진 졸업생 발전기금 전달

박미경, 음혜진 졸업생은 사범심의를 마치며 우리 지부의 발전을 기원하는 정성어린 기금을 마련 전달하였다. 우리 지부는 서로 마음을 나누며 돈독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 인성차문화(교육)예절지도사 2·3급 •

인성차문화(교육)예절지도사 2급(지도사범) 자격취득자 명단(3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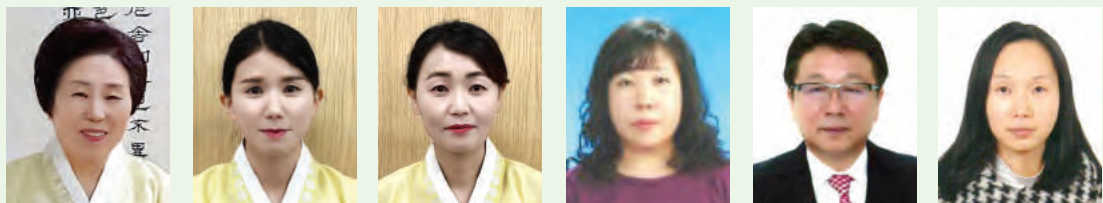
2급-제22-1035호 김혜진 2급-제22-1036호 성의순 2급-제22-1037호 채미정 2급-제22-1038호 윤혜경 2급-제22-1039호 한이분 2급-제22-1040호 김서영



2급-제22-1041호 안신영 2급-제22-1042호 구영희 2급-제22-1043호 채경숙 2급-제22-1044호 허윤경 2급-제22-1045호 서지민 2급-제22-1046호 노미영



2급-제22-1047호 류주희 2급-제22-1048호 박상희 2급-제22-1049호 박순자 2급-제22-1050호 박시현 2급-제22-1051호 박혜숙 2급-제22-1052호 안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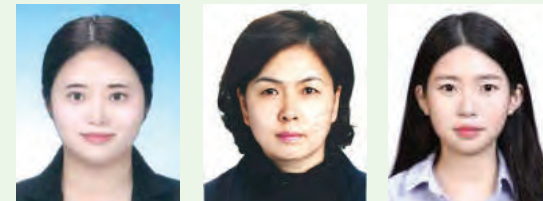
2급-제22-1053호 윤지윤 2급-제22-1054호 최윤정 2급-제22-1055호 황혜진 2급-제22-1056호 김기옥 2급-제22-1057호 김희영 2급-제22-1058호 이윤희



2급-제22-1059호 김 숙 2급-제22-1060호 김경희 2급-제22-1061호 김영숙 2급-제22-1062호 김현숙 2급-제22-1063호 박숙희 2급-제22-1064호 서태자



2급-제22-1065호 오수미 2급-제22-1066호 옥일화 2급-제22-1067호 이경희 2급-제22-1068호 진순선 2급-제22-1069호 최수연 2급-제22-1070호 최유진



2급-제22-1071호 배나래 2급-제22-1072호 박미경 2급-제22-1073호 음혜진

인성차문화(교육)예절지도사 3급(준사범) 자격취득자 명단(39명)



3급-제22-917호 김미선 3급-제22-918호 김보겸 3급-제22-919호 김성심 3급-제22-920호 김영춘 3급-제22-921호 김용선 3급-제22-922호 김종원



3급-제22-923호
신경선



3급-제22-924호
원영희



3급-제22-925호
유영숙



3급-제22-926호
이만호



3급-제22-927호
이정현



3급-제22-928호
정미경



3급-제22-947호
박은미



3급-제22-948호
염규영



3급-제22-949호
박동진



3급-제22-950호
소유미



3급-제22-951호
김복순



3급-제22-952호
박정자



3급-제22-929호
정미란



3급-제22-930호
정향숙



3급-제22-931호
강은화



3급-제22-932호
김소정



3급-제22-933호
김은서



3급-제22-934호
남은진



3급-제22-953호
박지숙



3급-제22-954호
윤석현



3급-제22-955호
조설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16명)

번호	지부	이름	인성교육예절지도사자격번호	번호	지부	이름	인성교육예절지도사자격번호
1	강원	김혜진	인성교육2급-제22-60호	9	대구경북1	허윤경	인성교육2급-제22-68호
2	강원	성의순	인성교육2급-제22-61호	10	서울1	서지민	인성교육2급-제22-69호
3	강원	채미정	인성교육2급-제22-62호	11	인천	김기욱	인성교육2급-제22-70호
4	경남	윤혜경	인성교육2급-제22-63호	12	인천	김희영	인성교육2급-제22-71호
5	경남	한이분	인성교육2급-제22-64호	13	인천	이윤희	인성교육2급-제22-72호
6	광주	김서영	인성교육2급-제22-65호	14	전북	배나래	인성교육2급-제22-73호
7	광주	안신영	인성교육2급-제22-66호	15	충북	박미경	인성교육2급-제22-74호
8	대구경북1	구영희	인성교육2급-제22-67호	16	충북	음혜진	인성교육2급-제22-75호



3급-제22-935호
박소희



3급-제22-936호
이소연



3급-제22-937호
최주랑



3급-제22-938호
홍예림



3급-제22-939호
박도연



3급-제22-940호
박성희



3급-제22-941호
조혜숙



3급-제22-942호
주혜란



3급-제22-943호
고효주



3급-제22-944호
김미소



3급-제22-945호
김상경



3급-제22-946호
박소라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39명)							
번호	지부	이 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자격번호	번호	지부	이 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자격번호
1	강원	김 해 진	2급-제22-1035호	21	순천	황 해 진	2급-제22-1055호
2	강원	성 의 순	2급-제22-1036호	22	인천	김 기 옥	2급-제22-1056호
3	강원	채 미 정	2급-제22-1037호	23	인천	김 희 영	2급-제22-1057호
4	경남	윤 혜 경	2급-제22-1038호	24	인천	이 윤 희	2급-제22-1058호
5	경남	한 이 분	2급-제22-1039호	25	전남	김 숙	2급-제22-1059호
6	광주	김 서 영	2급-제22-1040호	26	전남	김 경 희	2급-제22-1060호
7	광주	안 신 영	2급-제22-1041호	27	전남	김 영 숙	2급-제22-1061호
8	대구경북1	구 영 희	2급-제22-1042호	28	전남	김 현 숙	2급-제22-1062호
9	대구경북1	채 경 숙	2급-제22-1043호	29	전남	박 숙 희	2급-제22-1063호
10	대구경북1	허 윤 경	2급-제22-1044호	30	전남	서 태 자	2급-제22-1064호
11	서울1	서 지 민	2급-제22-1045호	31	전남	오 수 미	2급-제22-1065호
12	순천	노 미 영	2급-제22-1046호	32	전남	옥 일 화	2급-제22-1066호
13	순천	류 주 희	2급-제22-1047호	33	전남	이 경 희	2급-제22-1067호
14	순천	박 상 희	2급-제22-1048호	34	전남	진 순 선	2급-제22-1068호
15	순천	박 순 자	2급-제22-1049호	35	전남	최 수 연	2급-제22-1069호
16	순천	박 시 현	2급-제22-1050호	36	전남	최 유 진	2급-제22-1070호
17	순천	박 혜 숙	2급-제22-1051호	37	전북	배 나 래	2급-제22-1071호
18	순천	안 화 자	2급-제22-1052호	38	충북	박 미 경	2급-제22-1072호
19	순천	윤 지 윤	2급-제22-1053호	39	충북	음 혜 진	2급-제22-1073호
20	순천	최 윤 정	2급-제22-1054호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취득자(39명)							
번호	지부	이 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자격번호	번호	지부	이 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자격번호
1	수원	김 미 선	3급-제22-917호	21	순천	최 주 랑	3급-제22-937호
2	수원	김 보 겸	3급-제22-918호	22	순천	홍 예 림	3급-제22-938호
3	수원	김 성 심	3급-제22-919호	23	순천	박 도 연	3급-제22-939호
4	수원	김 영 춘	3급-제22-920호	24	순천	박 성 희	3급-제22-940호
5	수원	김 용 선	3급-제22-921호	25	순천	조 혜 숙	3급-제22-941호
6	수원	김 종 원	3급-제22-922호	26	순천	주 혜 란	3급-제22-942호
7	수원	신 경 선	3급-제22-923호	27	전남	고 효 주	3급-제22-943호
8	수원	원 영 희	3급-제22-924호	28	전남	김 미 소	3급-제22-944호
9	수원	유 영 숙	3급-제22-925호	29	전남	김 상 경	3급-제22-945호
10	수원	이 만 호	3급-제22-926호	30	전남	박 소 라	3급-제22-946호
11	수원	이 정 현	3급-제22-927호	31	전남	박 은 미	3급-제22-947호
12	수원	정 미 경	3급-제22-928호	32	전남	염 규 영	3급-제22-948호
13	수원	정 미 란	3급-제22-929호	33	전북	박 동 진	3급-제22-949호
14	수원	정 향 숙	3급-제22-930호	34	전북	소 유 미	3급-제22-950호
15	순천	강 은 화	3급-제22-931호	35	강원	김 복 순	3급-제22-951호
16	순천	김 소 정	3급-제22-932호	36	강원	박 정 자	3급-제22-952호
17	순천	김 은 서	3급-제22-933호	37	강원	박 지 숙	3급-제22-953호
18	순천	남 은 진	3급-제22-934호	38	강원	윤 석 현	3급-제22-954호
19	순천	박 소 희	3급-제22-935호	39	강원	조 설	3급-제22-955호
20	순천	이 소 연	3급-제22-936호				

• 제58회 동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증 및 상장 •

임원 임명장 수여(3명)		
조영아 인천지부장	노영숙 이사	이금숙 이사
공로상(15명) - 5인 다기세트	봉사상(15명) - 5인 다기세트	
- 강 원 지 부 - 지원스님 - 경 남 지 부 - 주영희 - 광 주 지 부 - 박설미 - 대구경북제1지부 - 안경숙 - 부 산 지 부 - 윤명희 - 서 울 제 1 지 부 - 신경희 - 서 울 제 2 지 부 - 손현숙 - 순 천 지 부 - 이강자 - 아 산 지 부 - 전유자 - 인 천 지 부 - 김순옥 - 전 남 지 부 - 김경자, 나혜영 - 전 북 지 부 - 전서령, 김정림 - 충 북 지 부 - 정미식	- 강 원 지 부 - 채옥례 - 경 남 지 부 - 정재운 - 광 주 지 부 - 김은영 - 대구경북제1지부 - 임순희 - 부 산 지 부 - 정귀옥 - 서 울 제 1 지 부 - 이은영 - 서 울 제 2 지 부 - 송향숙 - 순 천 지 부 - 류주희 - 아 산 지 부 - 김현옥 - 인 천 지 부 - 김은숙 - 전 남 지 부 - 이경희, 박선희 - 전 북 지 부 - 송순희, 김찬림 - 충 북 지 부 - 오정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3급(준사범) 자격증 수여식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3급(준사범) 자격증(39명)
- 강 원 지 부 (5명) - 김복순, 박정자, 박지숙, 윤석현, 조 설 - 순 천 지 부 (12명) - 강은화, 김소정, 김은서, 남은진, 박소희, 이소연, 최주량, 홍예림, 박도연, 박성희, 조혜숙, 주혜란 - 수 원 지 부 (14명) - 김미선, 김보겸, 김성심, 김영춘, 김용선, 김종원, 신경선, 원영희, 유영숙, 이만호, 이정현, 정미경, 정미란, 정향숙 - 전 남 지 부 (6명) - 고효주, 김미소, 김상경, 박소라, 박은미, 염규영 - 전 북 지 부 (2명) - 박동진, 소유미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졸업 및 자격증 수여식

자격 취득자 전체 선서 - 서지민 (서울제1지부)

개근상(20명) - 3인 다기세트
- 순 천 지 부 (8명) - 류주희, 박상희, 박순자, 박시현, 안화자, 윤지윤, 최윤정, 황혜진 - 인 천 지 부 (3명) - 김기옥, 김희영, 이윤희 - 전 남 지 부 (7명) - 김현숙, 박숙희, 오수미, 옥일화, 이경희, 진순선, 최유진 - 전 북 지 부 (1명) - 배나래 - 충 북 지 부 (1명) - 음혜진
화목상 (7명)
- 모녀(1) - 박남숙, 서지민 (서울제1지부) - 자매(2) - 최수연, 최유진 (전남지부) - 모녀(1) - 서유진, 음혜진 (충북지부) - 이종사촌(2) - 이강자, 박시현, 박상희 (순천지부) - 부부(1) - 주순복, 김희영 (인천지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2급(지도사범) 자격증 (39명)
- 강 원 지 부 (3명) - 김혜진, 성의순, 채미정 - 경 남 지 부 (2명) - 윤혜경, 한이분 - 광 주 지 부 (2명) - 김서영, 안신영 - 대구경북제1지부 (3명) - 구영희, 채경숙, 허윤경 - 서 울 제 1 지 부 (2명) - 서지민 - 순 천 지 부 (10명) - 노미영, 류주희, 박상희, 박순자, 박시현, 박혜숙, 안화자, 윤지윤, 최윤정, 황혜진 - 인 천 지 부 (3명) - 김기옥, 김희영, 이윤희 - 전 남 지 부 (12명) - 김 숙, 김경희, 김영숙, 김현숙, 박숙희, 서태자, 오수미, 옥일화, 이경희, 진순선, 최수연, 최유진 - 전 북 지 부 (1명) - 배나래 - 충 북 지 부 (2명) - 박미경, 음혜진
인성교육예절지도사2급 자격증 (16명)
- 강 원 지 부 (3명) - 김혜진, 성의순, 채미정 - 서 울 제 1 지 부 (1명) - 서지민 - 경 남 지 부 (2명) - 윤혜경, 한이분 - 인 천 지 부 (3명) - 김기옥, 김희영, 이윤희 - 광 주 지 부 (2명) - 김서영, 안신영 - 전 북 지 부 (1명) - 배나래 - 대구경북제1지부 (2명) - 구영희, 허윤경 - 충 북 지 부 (2명) - 박미경, 음혜진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 (국민은행 827-25-0027-409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1년 12월~2022년 2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협회 발전 찬조금

이사장 · 최소연 (39,600,000원)	부회장 · 김가영 (1,000,000원)	경남지부 (1,500,000원)
대구경북제1지부장 · 박경숙 (250,000원)	부회장 · 강순란 (1,000,000원)	대구경북제1지부 (1,000,000원)
수석부회장 · 이해자 (2,000,000원)	이사 · 연규남 (300,000원)	순천지부 (500,000원)
부회장 · 박광옥 (1,000,000원)	이사 · 서명주 (300,000원)	서울제2지부 (1,000,000원)
부회장 · 차영민 (1,000,000원)	이사 · 허경님 (100,000원)	인천지부 (800,000원)
부회장 · 강정자 (1,000,000원)	강원지부 (500,000원)	전북지부 (800,000원)

특별회비(임원)

부회장 · 이 림 (1,500,000원)	이사 · 이광용 (1,000,000원)	지부장 · 문차남 (500,000원)
부회장 · 강정자 (1,500,000원)	이사 · 이금숙 (1,000,000원)	지부장 · 박혜란 (500,000원)
이사 · 노영숙 (1,000,000원)	이사 · 이기분 (1,000,000원)	지부장 · 조영아 (500,000원)
이사 · 연규남 (1,000,000원)	이사 · 허경님 (1,000,000원)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강원지부 · 김혜진, 성의순, 채옥례

경남지부 · 이순기, 김미수, 이용숙, 이돌선, 조난영, 윤혜경, 한이분

광주지부 · 김서영, 안신영

대구경북제1지부 · 배동순, 박양자, 이은주, 김용하, 박서윤, 김천수, 양진순, 윤경선, 천필화, 양정화, 구영희, 채경숙, 허윤경

동수원지부 · 김미영

부산지부 · 이은숙, 김행숙, 정귀옥, 이정옥, 김선희, 김미경, 최경화, 심현숙, 윤명희, 서영숙, 우미애, 최영희, 고경숙, 김정숙, 박선남, 이수련, 이현주, 변인경

서울제1지부 · 조용연, 유지홍, 이상길, 장용자, 서지민

서울제2지부 · 조상철

순천지부 · 이강자, 김세화, 도성미, 노미영, 류주희, 박상희, 박순자, 박시현, 박혜숙, 안화자, 윤지윤, 최윤정, 황혜진

아산지부 · 전유자, 박미애

인천지부 · 김기옥, 김희영, 이윤희

전남지부 · 성애숙, 박금단, 김인옥, 김은주, 김경자, 유옥인, 이애숙, 김선숙, 이지호, 유순해, 위미정, 나애심, 박순희, 김재영, 박미정, 최현옥, 이채영, 나혜영, 김 숙, 김경희, 김영숙, 김현숙, 박숙희, 서태자, 오수미, 옥일화, 이경희, 진순선, 최수연, 최유진

전북지부 · 최성숙, 김금숙, 원지연, 전순경, 김금숙, 소예령, 조경우, 김수정, 김은성, 김영순, 안영래, 서기수, 김찬순, 이종원, 강길일, 배나래, 김미지, 이성자, 강길일, 이지연(2), 김찬순, 원지연, 고정옥, 진화순, 전서령, 김정림, 이미경(여란), 조남숙, 정성복, 국은희, 박영옥, 송순희, 소현아, 손혜란, 장은주, 이정희, 주순옥, 이형자, 차명옥, 김재선, 정문화, 정인숙, 정미영, 양필녀, 이영희, 최병이, 강진숙, 이종원, 순은주, 양필모, 김수진, 박영심, 김금숙, 최성희, 박은경

충북지부 · 이주현,한영선,박미경,음혜진

차인들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 ‘차문화’에 담고자 합니다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차문화지는 무가지로 발행되며 발송료는
연 1회, 1만 원입니다.
회원은 각 지부에 신청부탁드립니다.

정기 우승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보내주실 곳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우)04012
Tel : 02-719-7816~7
Fax : 02-719-7815
이메일 : koreatea1991@naver.com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지 2021년 11월~2022년 2월 우승료 납부자 명단

11월 통장 입금

서울제1 · 조용연, 유지홍, 이상길 / 서울제2 · 조상철 / 전남 · 김경자, 김인옥, 성애숙, 김은주, 박금단, 유순해, 위미정, 유옥인, 이애숙, 김선숙, 나애심, 박미정, 박순희, 최현옥, 이채영, 이지호 / 전북 · 최성숙, 원지연, 김금숙, 조경란, 윤성진

12월 통장 입금

경남 · 이순기, 김미수, 이돌선, 조난영 / 대구경북제1 · 김용하, 배문주(동순), 이은주, 박양자 / 동수원 · 김미영 / 부산 · 최경화, 박선남, 심현숙, 김미경, 우미애, 최영희, 정귀옥, 이수련, 김행숙, 김선희, 이은숙, 고경숙, 이정옥, 서영숙, 윤명희, 변인경 / 아산 · 박미애, 전유자 / 울산 · 김필선, 이은주, 이미자 / 전남 · 나혜영, 김정숙 / 충북 · 이주현

2022년 1월 통장 입금

강원 · 김혜진, 채미정, 성의순 / 경남 · 변종순, 한이분, 윤혜경 / 광주 · 김서영, 안신영 / 대구경북제1 · 양정화, 김천수, 양진순, 윤경선, 천필화, 박서윤, 허윤경, 구영희, 채경숙 / 서울제1 · 서지민, 장용자 / 순천 · 노미영, 류주희, 박상희, 박순자, 박시현, 안화자, 최윤정, 황혜진, 윤지윤, 박혜숙 / 인천 · 김기옥, 김희영, 이윤희 / 전남 · 김경희, 김숙, 김영숙, 김현숙, 박숙희, 서태자, 오수미, 옥일화, 이경희, 진순선, 최유진, 최수연 / 전북 · 배나래 / 충북 · 진순자, 음혜진, 박미경

2022년 2월 통장 입금

광주 · 박혜란, 노영숙 / 인천 · 조영아, 이광용 / 서울제2 · 문차남 / 전북 · 김미지, 이성자, 강길일, 이지연(2), 김찬순, 원지연, 고정옥, 진화순, 전서령, 김정림, 이미경(여란), 조남숙, 정성복, 국은희, 박영옥, 송순희, 소현아, 손혜란, 장은주, 이정희, 주순옥, 이형자, 차명옥, 김재선, 정문화, 정인숙, 정미영, 양필녀, 이영희, 최병이, 강진숙, 이종원, 순은주, 양필모, 박영심, 김금숙, 최성희, 박은경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지 '차문화'誌에 광고를 모집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고품격 '차문화' 지(誌)에 광고를 모집합니다.
창간 이후 무광고로 발행했던 '차문화'지에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계간 차문화

- 판형 : 4×6 배판(188mm×257mm)
- 면수 : 100면 내외
- 색도 : 올컬러
- 발행부수 : 5,000부
- 배포 : 차문화 전회원을 비롯하여 일본 및 전국 차관련 유관 단체

광고 신청 접수

- (사)한국차문화협회 사무국 메일 또는 전화 신청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 전화 : 02-719-7816)
- 광고 할 내용과 사진/ 광고필름/ PDF 파일/ JPGA 파일 접수함
- 접수된 광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함

선정 된 광고 게재 혜택

- 광고를 표 4에 실을 경우 협회에서 사업장(광고 장소) 취재 및 소개
- 회원 및 전국의 유관기관에 배포되어 광고 효과 기대됨.
- 사업장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 효과 기대 등.

광고 게재 금액 (연간 계약시 1회 무료)

- 표지4 (겉 표지) 1회 1,000,000원
- 표지3 (안 표지) 1회 500,000원
- 내지 1장 (1 페이지) 1회 300,000원
- 내지 ½장 (반 페이지) 1회 200,000원

문의: (사)한국차문화협회 사무국 T. 02-719-7816



수유칠덕 水有七德

차를 달이는 불은 솥을 쓰며,
그다음으로는 굳은 쇠나무를 켜다.
차를 달일 물은 山水가 상등품이요,
강물이 중등품이고, 우물물이 하등품이다.

陸羽 茶經에 나오는 말이다. 찻물의 소중함을 전하는 말로, 우리는 늘 상 찻를 함께 하면서 물을 끓이고 찻물이 우러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말로만 듣던 조금함이 사라지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과 차분한 심성을 배울 수 있고, 어느덧 나에 게도 배웠다. 또한 노자는 道德經에서 上善若水와 水有七德으로 "선(善)은 물과 같아서 거의 도(道)에 이르고, 물은 일곱 덕(七德)이 있어서 다투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다.

물이 가는 대로, 물 흐르듯이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하다, 조금한 마음,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모두 건강을 해치는 독이다. 좋은 물로 달여 하루 마시는 석 잔의 綠茶는 名藥이다. 우리 땅의 물과 찻는 제일 좋다는 것을 알았다. 물이 주는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배우자. ❶

담원 김창배 | 문화예술학 박사

동방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직 역임, 국내외 개인전 50여회, 대한민국미술상 수상, 차 한 잔의 인연, 동다송, 다산전 등 22권 출간.

차와 회화 차문화에 대하여 조선의 차 그림 연구 등 논문 4편, 원 동방문화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교수 재직.

담원 김창배 선생은 초의와 범해의 운도를 읽고 그들의 다맥(茶脈)을 이은 "금명보정(錦冥寶鼎)"을 연구하여 지난 2월 23일에 동방문화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錦冥寶鼎의 禮茶상과 茶詩에 대한 研究' <http://www.damwongallery.artko.kr>

● 찻잔 속 인생을 그리다 ●